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June 2026
Vol. 414



Symphony of a Thousand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 말러

Cover Story

2026 시그니처 클래식 NAC

Symphony No.5 &
Choral Series I-VIII

2026. **6.27**
토요일 오후 5시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NAC!
—
유토피아를
향하여

Series **IV** 쇼스타코비치 No.5
엘가 첼로 협주곡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 이정현(Vc)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All That Pyotr Tchaikovsky

**Busan
Neophilharmonic
Orchestra**

#2 부산네오피ilharmonic 오케스트라

P
Y
O
T
R
T
C
H
A
I
K
O
V
S
K
Y



| 지휘 | 홍성택

| 첼로 | 송영훈

P.I.Tchaikovsky

Overture "1812", Op. 49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 33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2026. 6. 19.(금)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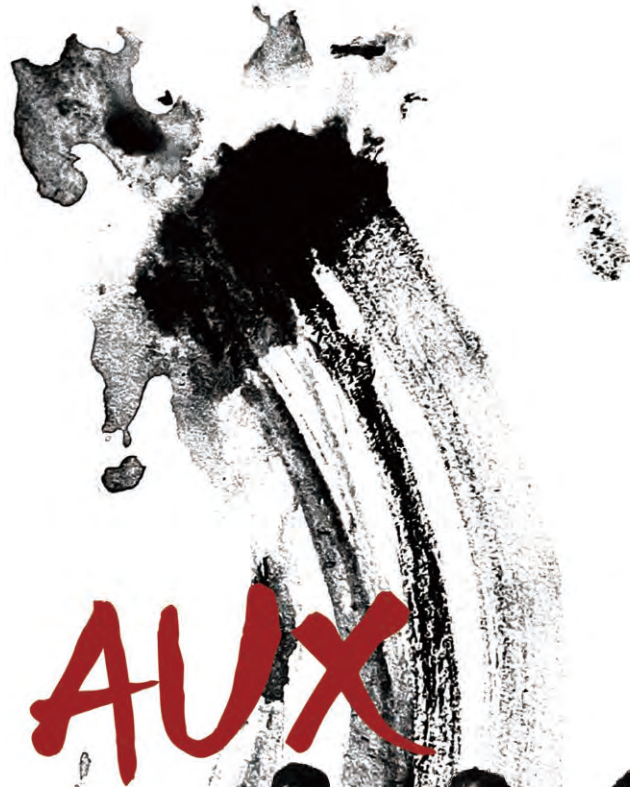
|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ouncil Association

BUSAN CENT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 후원 | B 부산일보

| 예매 및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www.bscc.or.kr) |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입장연령 7세 이상

RAINFOREST ZIA TAEHYEONG JINSIL TAYIE SUNGHA MINSEOK WOOSUNG



< 무제 ; 無題 > Untitled

2026.6.20(토) 1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해운대문화회관  BRND AUX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예매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티켓 전체1만원
티켓할인 누리회원(40%) 국가유공자·장애인·단체 20명이상(50%) 초·중·고등학생, 예술인패스(30%)
*학생증,장애인,국가유공자증 등 대표소 현장 확인 후 티켓 발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서



예술의 초대 Since 1992

CONTENTS



- 06 편집위원 칼럼
오이디푸스와 역병
- 08 특별기고
무대 위의 AI·디지털 혁신
AI·디지털 혁신사업의 발자취, 2024년~현재
- 12 김PD의 PD수첩 ⑤
오늘은 같이 갈까?
- 14 저작권과 문화예술
아이디어와 표현
- 16 Cultural Issue
세계의 음악 기념일과 6월 5일 '국악의 날'
- 18 아카데미 지상강좌
안토니 가우디
이성과 감성으로 빛은 건축
- 25 Cover Stor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31회 정기연주회
부산, 말러
- 30 문화가화제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 32 Preview
- 37 Program Guide
- 53 2026 공연프로그램 안내

June 2026

Vol.414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편집책임 남양욱

편집담당 정복엽

편집위원 구모룡, 김윤선, 김지용, 김지윤, 남윤태, 이상현, 장현정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607-6000

발행일 2026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오이디푸스와 역병

김지용 극작가, 연출가



일러스트: 한미정

현존하는 비극 중 가장 완벽한 형식을 갖춘 작품을 꼽으라면,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쓴 희곡 <오이디푸스 왕>일 것이다. 이 희곡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시학』에서 완벽한 비극적 형식미를 갖춘 작품으로 예를 들어 인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재해석, 재창조되고 있는 연극이다.

연극은, 오이디푸스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 테베에 역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관객에게 인지시키며 시작된다. 선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을 찾아 처단하면 역병

을 물리칠 수 있다는 신관의 말에 오이디푸스는 살해범을 특정하기 위해서 과거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을 소환한 후 진실을 추적해 나간다. 그리하여 종내는 오이디푸스 자신이 테베로 오기 전에 들렀던 신전 앞에서 선왕을 무참히 살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는 부자지간이란 것이었다. 과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할 것’이라는 신탁을 믿어버린 라이오스는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비정하게 죽이려 든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건진 오이디푸

스는 코린토스 왕가에 입양되어 성장한 후 자신도 모르게 이 끔찍한 신탁을 실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일만으로도 운명의 가혹함은 충분하건만 오이디푸스에게는 더욱 큰 시련이 남아있었다.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자신의 친어머니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만 무려 네 명이나 되는 것이다. 역병, 존속살해, 근친상간 등 인류 문명에 있어 금기시되는 모든 것들이 이 연극 안에 존재하며, 이 추악한 죄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자살과 스스로 눈알을 파내어 참회한 오이디푸스 당대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대까지 이어져 혈육끼리 서로 죽이는 아귀다툼으로까지 번진다. 저주스런 상황은 안티고네와 하이몬의 순수한 사랑, 숭고한 희생 후에야 비로소 끝을 맺는다.

고대 그리스 연극의 요체는 플롯(plot)이다. 플롯은 원인-과정-결과가 적합하게 버무려진 극적 구조를 말한다. 어떠한 결과는 이후 사건의 원인이 되며, 따라서 그리스 비극은 시간적 흐름 속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간파할 수 없었던 인과를 드러내 증명하려고 한다. 테베에 역병이 창궐한 것은 선왕인 라이오스 왕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등한시한 채 괴물 스팅크스를 처단한 오이디푸스를 더 환호한 테베 시민들의 어리석음에 기인한 것이고, 라이오스 왕의 죽음은 비정하게 자식을 버린 그의 죄값인 것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한다는 신탁은 과거 라이오스 왕이 동성애에 빠져 가정의 신인 헤라를 모욕한 탓이다. 이렇듯 우주의 균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 고대 그리스인이 만든 연극은 탐욕을 부린 인간이 자연과 운명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다룬다. 연극 안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 엔트로피처럼 쌓여 임계치를 넘어설 때 재앙으로 발현된다. 그리고 고통과 희생을 통해 신의 용서를 얻는다.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운동 과정 속에서 예술이 수난을 겪고 있다. 예술인들도 끼리끼리 분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쯤 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라는 숭고한 의식이 예술에게는 되려 역병이다. 이쪽도 저쪽도 발전과 완성은 제쳐두고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나의 적

인 상대방의 논리는 따져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물어뜯는다. 이것이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 특정한 한 분야에서 전문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벌이는 것이다. 진정 비극이다.

비극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다. 파멸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려 하나?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다. 복마전의 중심에 다음 세대는 없다. 추진하려는 쪽은 업무의 수월성, 효율성, 상징성을 주장하고, 저지하려는 쪽은 막대한 비용의 문제와 기회비용, 지금 당장의 문제를 내세운다. 간단하게 말해 이상과 현실의 대립인데, 그 어느 쪽의 주장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논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안의 결과만을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는 과정에 대한 숙의에 다름 아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즉각적이지 않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투자라는 행위는 목적성이 있기에 정성적인 요소보다는 정량적인 계측을 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기가 쉽다. 그런데 예술은 물리적인 것으로 치환되기 어렵다. 투자 효과의 시기도 장담하지 못한다. 게다가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에 5년 이내에 실적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우리는 과정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써야 한다. 비록 그것이 어리석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알베르 까뮈가 말했다. 정의란 최선을 희생해서 차선을 구하는 행위라고.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혜성처럼 등장’, ‘천재’ 이런 말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막힌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겠지만, 이 사회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 우연은 다양한 분야에서 훨씬 잦은 빈도로 발생할 것이다.

예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한다. 결과에서 과정으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5년마다 똑같이 끔찍한 역병을 겪는 부조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비극은 작품 안에서 보는 걸로 족하지 않은가.

무대 위의 AI·디지털 혁신

AI·디지털 혁신사업의 발자취, 2024년~현재

☎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공연예술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일련의 혁신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VR 디지털 공연장 구축, 3D 가상무대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AI 챗봇 도입, 디지털 콘서트 제작 그리고 Stage Art Lab이라는 네 개의 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여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돌아본다.

공연장이 내 화면 속으로 - 디지털 공연장(VR)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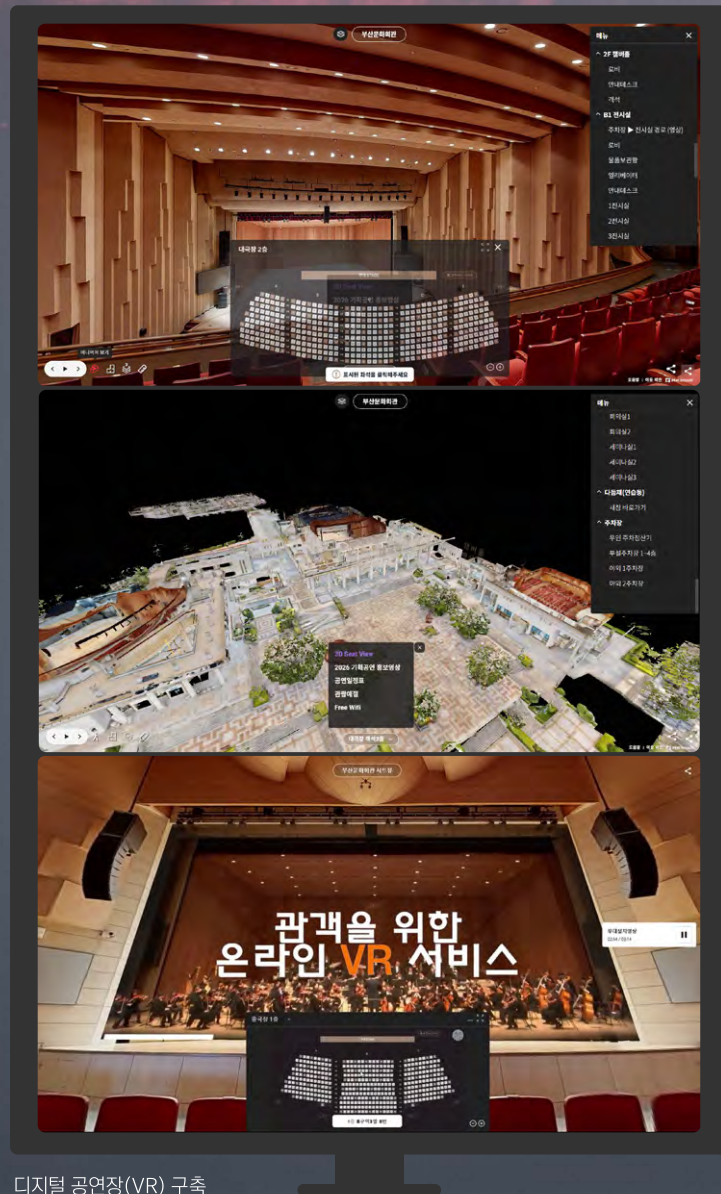
2024년 7월,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R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의 첫 단추를 꿰었다. '디지털 트윈 기반 공연시설 원격 답사 솔루션', 즉 VR 디지털 공연장이 그 결과물이다.

첫째, 디지털 공연장(VR)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부산문화회관 공연장을 온라인에 동일하게 구현한 서비스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공간에서 공연장을 체험할 수 있다.

둘째, 이 시스템은 관객용(360° 좌석뷰, 온라인 투어)과 공연자용(무대·조명·음향·분장실 정보, 치수 측정, 화상회의 기능)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공연 관람과 공연 준비 모두에 활용 가능하다.

셋째, 이를 통해 관객은 좌석 시야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공연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공연장 환경을 점검하고 협업할 수 있어, 부산문화회관이 글로벌 공연 거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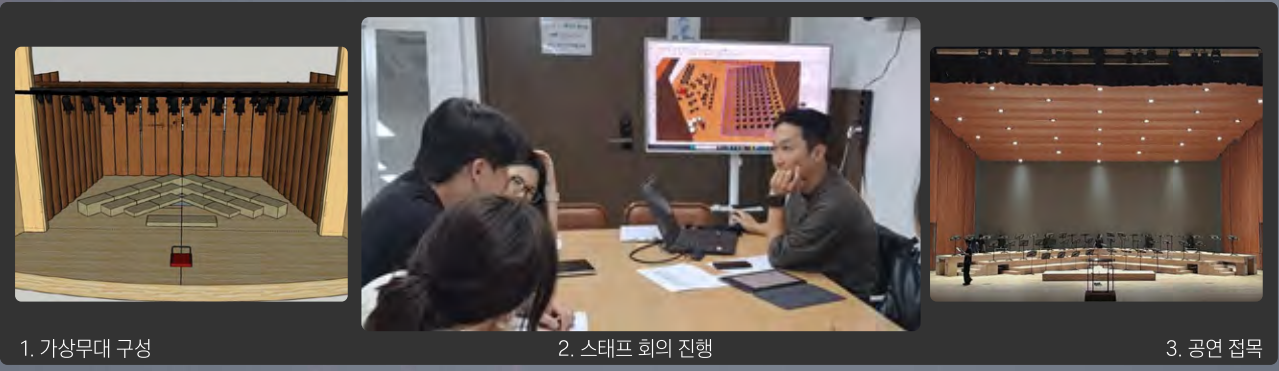
2025년 말에는 별도로 운영되던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의 VR 서버 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관객용·공연자용·좌석뷰 세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향후 영문 버전 개발과 전용 어플리케이션 자체 제작도 계획 중이다.



디지털 공연장(VR) 구축

”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화면 속 관객, 가상공간의 예술가, 데이터를 살아있는 공연장까지
부산문화회관은 지금 공연예술의 경계를 새로 그리고 있다.



1. 가상무대 구성

2. 스태프 회의 진행

3. 공연 접목

손끝으로 그리는 무대 - 3D 가상무대 시뮬레이션 시스템

공연장의 디지털화가 외부 관객을 위한 것이었다면, 3D 가상무대 시뮬레이션은 무대 위 예술가와 스태프를 위한 혁신이었다. 2025년 6월부터 무대예술팀이 직접 AutoCAD LT와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이 시스템은, 별도 외주 없이 소프트웨어 비용만으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스태프 회의는 평면 도면에 의존하거나, 텍스트로 무대 구성을 논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회의실 화면에 3D로 재현된 대극장과 중극장이 펼쳐지면 덧마루의 높이, 악기 배치, 음향반사판의 각도까지 직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이 모델링 자료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의 '연주단 무대 디자인 서비스' 코너에 게시되어, 대관 단체가 공연 신청 전에 다양한 무대 구성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 서비스로도 확장됐다. 2026년에는 자체 프로그램 교육과 부산시민회관 공연 스태프 회의의 확대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질문에 답하는 공연장 - AI 챗봇 시스템 개발

2025년의 또 다른 혁신은 하이브리드 RAG 기반 Q&A 챗봇 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이다. 이 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R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자체 부담 없이 전액 국비지원금으로 추진되었다.

‘하이브리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는 정보 검색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방식으로,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문맥을 이해하는 응답을 가능하게 한다. 챗봇은 내부직원용과 외부고객용으로 나뉘어 개발됐다. 직원용 챗봇은 내부 규정·업무 지침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고객용 챗봇은 공연 일정·티켓 예매·할인 정보를 즉각 안내한다. 기존 규정집을 일일이 뒤지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디지털 공연장(VR) 시스템과 연동해 공연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답하는 기능도 구현됐다.

2025년 9월 내규·조례 1차 시범운영, 11월 부산문화·시민회관 공연 안내 2차 시범운영을 거쳐, 챗봇 시스템은 실제 민원 응대 현장에서의 접목 가능성을 경험했다. 이 실증 경험은 향후 챗봇기반 디지털 서비스 도입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면 너머의 관객을 향해 - 디지털 콘서트 제작

네 가지 사업 중 가장 직접적으로 시민과 만나는 것은 바로 디지털 콘서트 제작이다. 2025년 8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무대예술팀은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3회 정기연주회, 그리고 2025년 제야음악회 등 세 차례의 공연을 멀티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송출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대극장의 단일 FHD 카메라 1대 체제는 이번 사업을 통해 FHD 8대 멀티카메라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외부 카메라 감독의 전문적인 무빙과 조이스틱 운영 방식을 결합하고, 라이브 자막 송출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관객이 곡명과 협연자 이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야음악회에서는 커튼콜 순간 객석 LED 스크린에 출연자 이름을 실시간 중계하는 연출까지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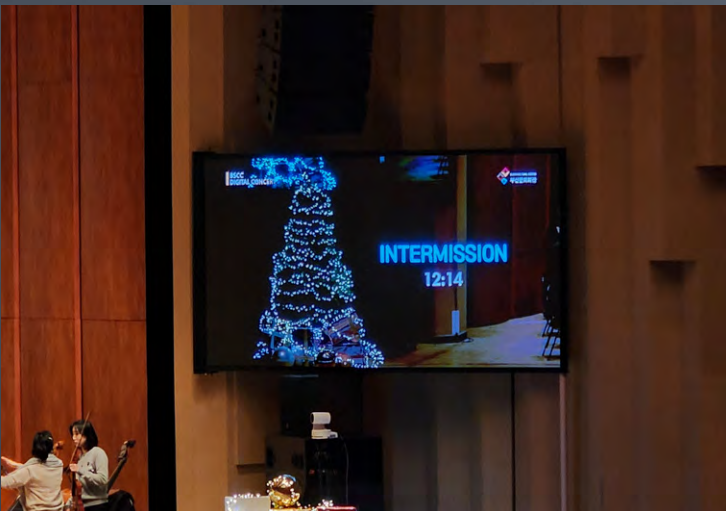
이 경험은 단순한 영상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무대예술팀은 이를 발판으로 공연 유료 라이브 스트리밍, 'All in One Studio' 지역 예술단체 지원 패키지, 야외 BSCC Live Screen 설치 등 구체적인 수익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울·경 지역 영상제작 거점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이 가시화된 것이다.

**Stage Art Lab,
무대 뒤의 전문성을 온라인 배움으로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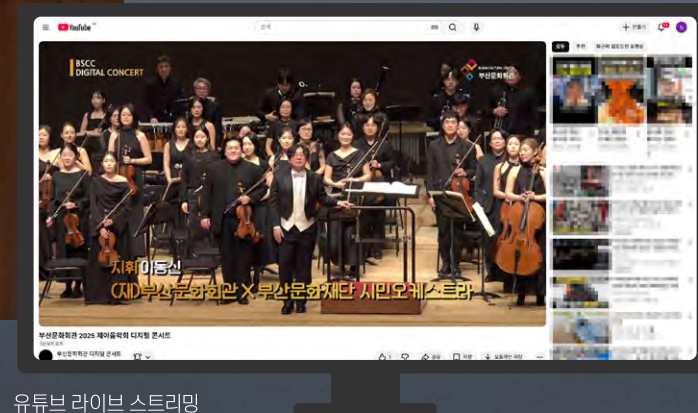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의 박수는 객석을 가득 채우지만, 그 환호가 닿기까지의 과정은 대부분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무대기계가 움직이고, 조명이 호흡을 맞추고, 음향이 공간의 밀도를 조절하는 순간들은 화려한 공연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이 추진한 무대예술아카데미 'Stage Art Lab' 기본계획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문성을 지역 청년과 예비 인력에게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부·울·경 지역의



커튼콜 자막 송출



객석 LED 인터미션 라이브 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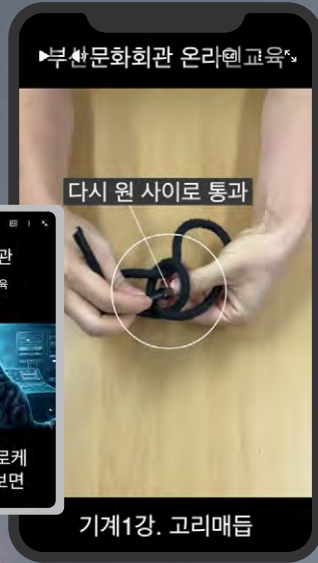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교육 연결하기



(재)부산문화회관 온라인교육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입문자부터 실무 인력까지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그 중심에 놓였다.

‘2026년 무대예술아카데미 SNS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의 핵심은 무엇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있다. 계획안은 세 가지 콘셉트를 제시한다.

첫째, 공연장 스태프의 역할과 제작 과정, 안전 법규 등을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젊은 세대가 익숙한 서사형 콘텐츠 문법을 무대예술 교육에 접목한 시도다.

둘째, ‘1영상 1스킬’ 전략이다. 영상 한 편당 핵심 기술 하나를 60초 내외의 숏폼으로 압축해 반복 학습과 직관적 이해를 돕겠다는 구상은, 복잡한 실기 내용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학습 장벽을 낮춘다.

셋째, 무대예술인 자격검정 시험 일정과 출제 경향에 맞춘 키워드 영상 제공이다. 이는 온라인 학습을 실제 자격 준비와 오프라인 실기 체험으로 연결하는 고리로 기능한다.

결국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의 이번 기획은 ‘무대 뒤’의 세계를 더 많은 사람에게 열어 보이는 작업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연을 완성하는 기술과 태도, 안전과 책임, 그리고 팀워크의 감각을 지역의 미래 인력에게 전수하려는 노력이다. ‘Stage Art Lab’이 기본계획에서 출발해 SNS 교육 콘텐츠 제작·운영으로 이어진 것은, 무대예술 교육 역시 시대의 언어로 다시 말해져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공연이 무대 위에서 완성된다면, 전문성은 무대 뒤에서 자란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의 장면은 공연장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청년에게 닿기 시작했다.

디지털 혁신, 현재진행형

VR, 3D 무대 시뮬레이션, AI 챗봇, 디지털 콘서트, 무대예술아카데미 SNS운영, 이 다섯 가지 사업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연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AI를 활용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고, 예술가와 관객 모두가 더 넓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과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은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비 공모사업과 자체 제작으로 조달하며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내부 인력이 직접 3D 모델링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 이 경험은 2026년 이후 더 큰 사업들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공연의 기억이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있는 도시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이 꿈꾸는 내일이다.

오늘은 같이 갈까?

김민지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차장

함께 걷는 계절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드는 계절이 다가왔다. 상큼한 바람, 하루 종일 뽀송뽀송할 것 같은 햇볕,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는 날들. 요즘 출근길 차 안에서는 이대로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매년 굴뚝같다.

화창한 날씨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 가고 싶은 존재'가 떠오른다.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 막내,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다. 함께 살고, 함께 쉬고, 함께 외출하는 가족에 가깝다. 이제 '반려인 1,500만 시대'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다. KB금융지주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인은 1,546만 명,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카페와 숙소, 공원은 물론이고 이제는 공연, 영화, 전시, 축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문화생활도 더 이상 사람만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와 나누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공연장에도 찾아온 반려동물

사실 부산에서도 이런 시도는 이미 있었다. 2019년 (재)부산문화회관이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미술전 <너는 나에게-반려동물전>을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었고 야외광장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음악회도 개최했다. 당시 전시에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작가 20인의 작품이 소개되었고 야외 음악회에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레게음악 팀 등이 출연했다. 반려동물 토크쇼, 건강

관리 강연, 펫티켓 캠페인, 무료 건강상담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생각해보면 꽤 앞선 시도였다. 공연장이라는 공간은 보통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그 공간 바깥의 광장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음악을 듣고, 전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조금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연장이 꼭 객석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이 시민의 생활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2020년에는 부산 구포시장에서도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렸다. 전통시장이라는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시장, 거리, 광장, 공연장,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은 이미 여러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춘천에서는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연을 보고,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야외 공간을 함께 거니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은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2019년 개최된 <너는 나에게-반려동물전>과 야외음악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반려동물 동반 야외상영회〉

같이 본다는 것의 즐거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야외 상영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했다. 돛자리를 펴고 앉아 반려동물과 함께 영화를 보는 풍경은 조금 낯설지만 동시에 꽤 행복한 장면이다. 음악회도 마찬가지다. 군산시립예술단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했고 관악구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소풍〉 같은 프로그램이 열렸다. 반려동물 관련 체험과 건강상담,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이다.

청도의 〈개나소나 콘서트〉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례도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음악을 듣는다는 아이디어는 이제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 강아지, 고양이도 같이 갈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 더 이상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다. 문화시설 역시 그 질문에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다.

공연장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

물론 공연장 안으로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소음이나 안전 문제, 알레르기, 다른 관객의 관람 환경, 그리고 동물의 스트레스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모든 공연이 반려동물 동반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 무리한 시도는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래서 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야외광장 음악회, 반려동물 동반 전시, 펫티켓 캠페인, 산책과 공연을 연결한 프로그램, 반려동물 사진전, 가족 단위 피크닉 콘서트처럼 공연장 안팎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화예술은 결국 생활과 가까워질 때 더 오래 남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텐츠는 단순히 ‘귀여운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연장을 더 편하게 느끼는 하나의 입구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라면 공연장도 그 변화에 조금씩 반응할 필요가 있다. (재)부산문화회관도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연장이 꼭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햇살 좋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우리 집 막내와 함께 가볍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문화생활의 문턱은 때로 아주 작은 경험에서 낮아진다. 광장에서 들은 음악 한 곡, 반려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공연장 앞에서 보낸 기분 좋은 오후. 그런 기억이 쌓이면 공연장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공간이 아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장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 자주,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만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우리 집 막내와 함께 공연장으로 향하는 날을 상상해본다. 힐링은 두 배, 행복도 두 배. 아마 그날의 기억도 두 배쯤 오래 남지 않을까.



순천 반려동물 페스티벌



아이디어와

표현

계승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I. 저작권은 표현만 보호한다

저작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디어가 나타나 있는 표현만이다. 저작권법 이론에서는 이것을 흔히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부른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콘셉트, 방법, 원리, 방법, 원칙, 화풍, 트렌드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법칙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미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유인력법칙을 설명한 교과서는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처음으로 생각하

거나 아이디어를 내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특허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아이디어가 특허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표현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은 저작권 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의 하나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면 ‘피아노 교본’ 사건¹⁾이 있다. “고소인 측의 『알프레드(alfred) 피아노 교본』에서 택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피아노 교습에 관한 교육이론과 이에 기한 교습방법 또는 순서 자체는 이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쇄·판매한 「엘리트 피아노 교본」이 설사 고소인

측 교본과 같은 교육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저작권 침해가 되는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II.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더라도 아이디어가 오직 그 표현 방법 이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서 보호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제한된 표현, 업무의 효율성을 표현하기 위한 공란의 서식, 게임의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모듈 등은 모두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게임을 제작할 때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표현이 있다.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 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²⁾

III. 필수적 장면(표준적 삽화)의 원칙

주로 소설이나 희곡 등에 있어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예컨대 소설의 주제나 기본적 플롯)가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이나 배경, 등장인물의 성격 타입 등과 같은 요소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과 같이 ‘사랑하는 연인인데 원수 집안’과 같은 것은 필수적 장면의 하나에 해당된다. 애정 드라마에서 3각 관계와 같은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극적 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소재나 주제 또는 추상적 줄거리에 대하여 표현 방법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필수 장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 이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도 연관성을 가진다.

필수적 장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영화 클래식’ 사건³⁾이 있다. 이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희곡이나 대본, 시나리오 등과 같이 배우의 실연을 전제로 하는 극저작물의 경우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주제나 플롯이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들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등과 같은 요소는 설령 그것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질 수 없고(이른바 표준적 삽화의 원칙),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과정, 극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위 등의 극적인 요소만이 극저작물에 있어 보호받는 표현이 존재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창작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아이디어 또는 전형적인 사건·표현이나 장면 묘사에 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장래에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이러한 소재 등은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에 두어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그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와 같은 소재나 사건·장면들을 최초로 창작하여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논거를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들이라고 판시하였다.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3 서울고등법원 1991. 9. 5.자 91라79 제6민사부결정.

세계의 음악 기념일과 6월 5일 '국악의 날'

송현민 음악평론가



달력은 날짜를 적어 두는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담겨 있다. 생일은 한 사람의

탄생을 기억하고, 명절은 가족과 공동체의 시간을 되새긴다. 추모일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음악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한 나라와 공동체가 “이 음악이 우리 삶과 함께해 왔다”고 말하는 날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자랐는지, 어떤 노래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날이다.

유럽부터 남미까지, 세계의 음악 기념일들

세계 곳곳에는 음악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다. 어떤 나라는 자국의 음악 전체를 기념하고, 어떤 나라는 탱고·플라멩코·레게·메렝게처럼 한 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특정 장르를 기념한다.

프랑스의 ‘음악 축제’(Fête de la Musique)는 매년 6월 21일, 여름의 문턱에서 열린다. 1982년 프랑스 문화부가 시작한 이 축제는 거리와 광장, 공공장소를 무대로 삼는다. 아마추어와 전문 음악가가 함께 연주하고, 시민은 무

료로 음악을 만난다. 특정 민족음악을 기리는 날이라기보다, 음악이 도시 전체로 흘러나오는 날이다. 프랑스 문화부는 이 축제를 “모든 장르의 음악”을 위한 무료 대중 행사로 설명한다.

콜롬비아는 3월 21일을 ‘콜롬비아 음악의 날’로 정했다. 베트남은 9월 3일을 ‘베트남 음악의 날’로 기념한다. 특히 전날인 9월 2일은 베트남의 독립 기념일로, 1945년 호찌민 주석이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선포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을 알린 날이다. 국가 기념일 다음 날이 음악의 날이다 보니,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와 함께 음악을 통한 문화 행사가 더욱 뜻깊게 이어진다.

러시아 남부와 이란 사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9월 18일 ‘국가 음악의 날’도 흥미롭다. 이날은 작곡가 우제이르 하지베일리(1885~1948)의 탄생일과 연결된다. 동방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유되는 16세기 시인 무함마드 푸줄리의 서사시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레일리와 마즈눈>을 작곡했고,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근대음악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그의 생일이 곧 국가 음악의 날이 되었는데, 사실은, 한 작곡가의 삶이 한 나라 음악사의 상징으로 확장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탱고·레게·플라멩코의 생일도 기념일로

특정 음악 장르를 기념하는 날들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12월 11일을 ‘탱고의 날’로 기념한다. 탱고음악의 상징 카를로스 가르델(1890~1935)과 홀리오 데 카로(1899~1980), 두 사람이 같은 날 태어난 데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가르델은 가수이자 작곡가였고, 데 카로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다. 탱고는 항구와 이민, 도시의 고독과 사랑을 품고 자라난 음악이다. 그래서 이날은 한 장르의 생일이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과 춤, 가난한 골목의 정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다.

멕시코와 쿠바 옆의 섬나라 자메이카는 2월 한 달을 ‘레게의 달’로 삼는다. 그중 2월 1일은 레게 가수 테니스 브라운(1957~1999), 2월 6일은 싱어송라이터 밥 말리(1945~1981)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 기간 동안 자메이카의 음악

2025년 제1회 국악의 날 기념 공연

적, 문화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수도 킹스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 라이브 콘서트, 거리 파티, 학술 세미나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레게가 저항과 평화, 공동체의 언어임을 확인한다.

스페인인 11월 16일을 '세계 플라멩코의 날'로 기념한다. 2010년 11월 16일 안달루시아 지방 정부의 제안으로 플라멩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래, 춤, 기타가 하나의 격정으로 결합되는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의 예술이면서 이미 세계인의 언어가 되었다.

쿠바와 자메이카 인근의 도미니카공화국은 11월 26일을 '메렝게의 날'로 기념한다. 1920년대에 탄생한 메렝게는 빠르고 경쾌한 리듬, 짝을 이루어 추는 춤, 아프리카와 유럽의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진 도미니카공화국의 민족음악이다. 2005년 대통령령으로 메렝게의 날이 지정되었고,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국악의 날, 부산에는 어떤 공연이?

이러한 음악의 달력 속에서, 한국의 '국악의 날'이 보인다. 2024년 7월에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이 지정된 이유는 백성과 음악을 함께 즐긴다는 뜻의 악곡 〈여민락(輿民樂)〉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1447년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사실 국악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흐름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994년은 '한국음악의 해', 곧 '국악의 해'로 지정되었다. 당시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을 보존의 대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생활화와 세계화, 공연과 교육, 대중화의 영역으로 넓히고자 했다. 더불어 1994년은 '한국방문의 해', 서울 정도 600년, 동학 100주년 등과도 맞물려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는 민족문화의 발굴과 세계화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악을 한국 문화의 대표 자산으로 내세우려 했다. '국악의 날'은 '국악의 해'가 만든 흐름 위에 놓인 또 하나의 제도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올해 부산에서도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무대들이 열린다. 국립부산국악원은 6월 5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 연악당에서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공연 〈남사당놀이-바우덕이 밤마실〉을 올린다. 남사당놀이는 풍물, 노래와 춤, 음악과 재담, 기예와 몸짓이 한데 어우러지는 민중의 놀이판으로 196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이 공연은 국악의 날이 품은 '여민락'의 정신을 민중의 신명과 해학으로 풀어내는 무대라 할 만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도 같은 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제236회 정기연주회 〈국악의 날,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를 선보인다. 공연명처럼 국악의 날에 우리 소리를 만나게 하는 공적 취지의 기념형 연주회다. 대취타의 장엄한 울림으로 시작해, 부산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박대성류 아쟁산조와 부산농악을 각각의 보존회가 선보인다. 또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대, 어울림국악연구회 등 부산의 국악 자원들과 연계되는 이 무대는 국악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공연장에서 새롭게 호흡하는 음악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음악 기념일은 그 음악이 우리의 일상과 시간 속에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다. 탱고는 오늘도 누군가의 발끝에서 다시 태어나고, 레게는 거리의 목소리로 울리며, 플라멩코는 손뼉과 발 구름 사이에서 세계로 번져간다. 국악도 그렇다. '여민락'이라는 곡명의 이름처럼, 국악은 백성과 더불어 즐길 때 가장 깊어진다. 그래서 6월 5일 국악의 날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를 다음 세대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부산의 6월, 그 물음은 공연장의 문을 열고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안토니 가우디

이성과 감성으로 빛은 건축

글·사진 이병기 아키텐스 대표, 가우디 연구자

가우디- 자연을 사랑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는 1852년 6월 25일 스페인 카탈루냐주 타라고나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 지방의 빛이 조형 예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온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빛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늘 자신이 그들과 같은 지중해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려서부터 앓은 류머티즘 질환 때문에 시골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형태들이 비단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역학적으로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같은 판단이 이후 그의 건축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우디의 대학 졸업사진(1878년)

가우디가 태어난 19세기 중반, 새로운 동력의 등장으로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대대로 구리세공업에 종사해 온 가우디 집안도 타라고나 지역의 작업장을 처분하고, 바르셀로나로 이주하여 제각기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 이병기 건축가 제공

가우디는 돌 건축물에 부드러움과 움직임을 담으려했다. 밀라 주택



구엘 저택의 살롱은 비대칭적이고, 모서리가 열려있는 역동적 공간이다.

게 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건축 공부를 시작한 막내 안토니 가우디는 1926년 74세의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독창적인 건축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비센스 주택(1885)을 비롯하여 구엘 저택(1890), 구엘 공원(1914), 구엘 공장단지 지하경당(1914), 바트요 주택(1906), 밀라 주택(1912), 성가정 성당(1882~)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일곱 작품이 등재될 정도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거 100주기를 맞이한 올해 2월, 유작인 성가정 성당의 그리스도 탑이 완성되면서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 건축물(172.5m)로 기록되었다.

가우디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자연’이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화’다. 그는 산업혁명이 열매를 맺고 있던 시대, ‘스페인의 맨체스터’라고 불리던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했고, 건축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든 산업화되어야만 했다. 뜻밖에도 그의 건축 노트에는 이 주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기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다. 프랑스의 아르누보, 독일의 유겐트스틸, 오스트리아의 세세션, 카탈루냐의 모데르니스마까지 당대의 아방가르드 흐름은 모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표명했다. 끊임없는 변화와

활기를 드러내는 대상인 자연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기에 충분했다.

구엘 저택 - 새로운 사회 새로운 입맛

아방가르드가 여전히 주류였던 신고전주의를 비집고 나온 것은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19세기 초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아메리카 각지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이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왔다. 거대 자본을 가진 새로운 계급, 스페인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인디아노(indiano)’라고 부른다. 전통 귀족들이 고전주의를 선점했기 때문에 인디아노를 위시한 신흥 산업자본가들은 의도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입맛을 드러내려 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우디와 구엘의 결합은 아방가르드와 신흥 계급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1878년 건축 학교를 졸업한 가우디는 그해 파리 만국박람회에 보낼 진열대를 제작한다. 그리고 이 진열대를 눈여겨본 에우세비 구엘이 가우디를 찾아왔다. 가우디가 구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우디 작품의 가치를 알아본 구엘이 먼저 가우디를 찾은 것이다.

‘구엘 공원’과 ‘구엘 저택’, ‘구엘 공장단지’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에우세비 구엘은 이 시대 인디아노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격변을 하나의 기회로 일구어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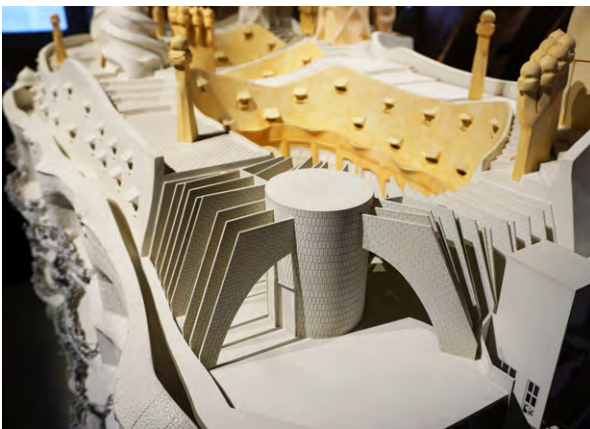
구엘 밀라 주택
침실의 기둥은
반짝이는
식물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 이병기 건축가 제공

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에너지를 동경했고, 변화와 역동, 활기를 드러내는 자연을 탐구했다. 구엘 저택 살롱의 역동적인 계단이나, 모서리마다 배치된 회화들, 침실에 가녀린 윤곽으로 경쾌하게 만들어진 아르누보 모티프나 반짝이는 식물 장식들은 이런 입맛을 잘 드러낸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주거

19세기 중반 바르셀로나의 인구밀도는 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지자 밀집된 거주지에서 황열병과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 이병기 건축가 제공

가우디의 역동적인 형태는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지어졌다. 밀라 주택

산업화를 맞이한 여러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일 이기에 유럽 전역에서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개조 계획이 앞다투어 등장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1854년 도시 확장을 막고 있던 주변 성벽의 철거가 시작됐고, 1859년 바르셀로나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조확장계획안 공모를 통해, 1860년경 신시가지의 건설이 시작됐다. 카탈루냐어로 '확장'을 뜻하는 '에이삼플레' 지구는 각 변이 113.3미터인 네모 반듯한 구조로 지어졌다. 20미터로 대단히 넓어진 도로 폭 덕에 모든 건물의 입면이 잘 보이게 되었고, 가문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기에 저마다 건물 입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가우디는 에이삼플레 지구에 주택을 세 채 지었는데, 그 중 두 채가 그라시아 대로(Passeig de Gràcia)에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넓고, 화려한 이 길에 모두가 자신의 집을 지어 뽐내고 싶어 했고, 그런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가우디의 것보다 더 좋은 양식은 없었다. 밀라 주택은 '부자들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불리던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이다. 이 주택은 입면 길이가 바르요 주택의 4배 가량 되는 큰 집으로, 블록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에이삼플레 블록은 계획 당시부터 모퉁이를 비워 놓았는데, 이는 꺾이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채광과 환기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가우디는 철골 구조체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거대한 안뜰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어둡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모퉁이 집의 폴리지 않는 속세를 훌륭하게 해결했다.

성가정 성당 - 새로운 구조 새로운 기하학

성가정 성당은 가우디가 무려 43년간이나 매달렸던 특별한 프로젝트다. 이 기간은 그가 건축가로서 활동하던 초기, 중기, 말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밀라 주택이 마무리된 후, 사망하기까지 15년간 그는 오로지 이 성당의 완성에만 전념했다고 전해진다.

대학을 졸업한 그해, 가우디는 '마타로 노동자협동조합' 계획안을 발표한다. 이곳의 기계실은 기성부재를 조립해

서 만든 포물선 아치로 지어졌는데 이는 그가 처음부터 산업화 시대의 합리적인 구조 계산과 생산 방식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구엘 공원에서 처음 등장한 ‘기울어진 기둥’은 바깥으로 넘어지려는 웅벽의 미는 힘을 받치는 합리적 형태로서, 이후 성가정 성당 내부의 나무 모양 기둥의 모태가 되었다.

한편 구엘 공원의 기울어진 기둥이나, 밀라 주택 옥상의 돌돌 말린 계단실은 얼핏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축을 따라 회전하며 만들어진 입체, 다시 말해 결과물의 예측과 변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똑같은 형태를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는 기하학적으로 해석된 형태들이다.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이자 유작인 성가정 성당을 이루는 거의 모든 부재는 쌍곡면(hyperboloid), 나선면(helicoid), 원뿔면(conoid) 등 ‘직선이 움직이며 만들어낸 곡면’(선직면, ruled surface)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같은 3차원 곡면들은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차원 도면으로는 재현이 어렵지만, 직선의 조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가우디의 초기, 중기, 말기를 각각 대표하는 ‘구엘 저택’과 ‘밀라 주택’, ‘성가정 성당’은 동시대의 환경과 더불어 그의 건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훌륭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기(아키텐스 대표, 가우디 연구자)
 가우디의 모교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였다. 『장식』과 『가우디 1928』, 가우디 연구에서 중요한 두 권의 저서를 우리말로 처음 번역하였으며, 저서 『밀라주택: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을 출간하였다. 2013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가우디 특별전>에서는 기획위원을, 2015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가우디전>에서는 자문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국립한밭대학교와 대전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설계와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 이병기 건축가제단

구엘 공원에서 시작된 기울어진 구조체에 대한 연구는 구엘 공장단지 성당으로 이어졌다. 구엘 공장단지 지하경당



© 이병기 건축가제단

나무가지 모양의 이 기둥들은 기하학적으로 해석된 합리적 구조체다. 성가정 성당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 서거 10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가우디의 예술 노트



| 신청기간 | 4.8.(수)~선착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bscc.or.kr(아카데미>수강신청)
 | 수강료 | 각 회차별 24,000원

* 마니아 패키지 : 전 강좌(총 10개) 신청시 50% 할인(120,000원)



연번	일시	장소	강연자	강의주제
1	05. 29.(금) 14-16시	챔버홀	임승희 선문대 사학과 교수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화양연화
2	06. 02.(화) 14-16시	챔버홀	이 현 미술사가	마드리드 미술관 산책 : 프라도 미술관, 티센보르네미샤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3	06. 09.(화) 14-16시	챔버홀	이 현 미술사가	바르셀로나 미술관 산책 : 카탈로니아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바르셀로나 MOCO
4	06. 16.(화) 14-16시	챔버홀	이병기 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가우디 _ 자연을 사랑한 건축가
5	06. 23.(화) 14-16시	챔버홀	이병기 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구엘 저택 _ 어제의 양치기, 오늘의 귀족
6	07. 02.(목) 14-16시	챔버홀	이병기 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밀라 주택 _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
7	07. 07.(화) 14-16시	챔버홀	이병기 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성가정 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 _ 새로운 구조, 새로운 기하학
8	07. 14.(화) 14-16시	챔버홀	박소현 이화여대 음악대학(건반악기과) 교수 오르가니스트	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 파이프 오르간의 2,000년 여행
9	07. 21.(화) 14-16시	챔버홀	정수경 인천가톨릭대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교수	가우디의 빛의 숲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10	07. 22.(수) 14-16시	챔버홀	롤라 장 (Lola Chang) 플라멩코 안무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훈장 수훈 (2018)	'영혼을 흔드는 스페인 춤' : 플라멩코에 숨겨진 감정과 미학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051-607-6000

01 05. 29.(금)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화양연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이전에 스페인이 있었다. 화려했던 만큼 영광의 시절은 짧았던 태양의 나라 스페인의 화려한 등장과 몰락의 역사를 살펴본다.



임승휘 선문대 사학과 교수
- tvN벌거벗은세계사, EBS인물사담회, JTBC특파원25시 등 방송출연

02 06. 02.(화)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마드리드 미술관 산책

프라도 미술관, 티센보르네미샤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스페인의 역사와 미술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왕립컬렉션의 프라도 미술관, 개인의 컬렉션에서 공공미술관이 된 티센보르네미샤, 피카소의 최고 걸작을 소유한 레이나 소피아까지 스페인 예술의 정수를 미술관 중심으로 감상해 본다.



이 현 미술사가
-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객원연구원 역임
- 아르떼 포에베 대표, 미술사연구소장

03 06. 09.(화)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바르셀로나 미술관 산책

카탈로니아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바르셀로나 MOCO

스페인 경제의 중심지이자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을 소유한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 미술관과 스페인 최대의 피카소 미술관, 최근에 오픈한 바르셀로나 MOCO에 이르기까지 바르셀로나만의 현대미술의 독자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다.



이 현 미술사가
-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객원연구원 역임
- 아르떼 포에베 대표, 미술사연구소장

04 06. 16.(화)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가우디-자연을 사랑한 건축가

자연을 사랑한 안토니 가우디가 남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까사 바트요, 까사 밀라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통해 그의 예술혼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병기 건축가, 국립한밭대 강의중
- 가우디의 모교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건축 전공
- 저서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밀라주택』
번역서 『장식』, 『가우디 1928』 등

05 06. 23.(화)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구엘 저택 -어제의 양치기, 오늘의 귀족

애우세비 구엘은 산업 자본가이자 정치인으로, 가우디의 든든한 최고 후원자였다. 특히 가우디에게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독창적인 건축 세계가 완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구엘 저택, 구엘 공원 탄생 배경을 살펴본다.



이병기 건축가, 국립한밭대 강의중
- 가우디의 모교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건축 전공
- 저서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밀라주택』
번역서 『장식』, 『가우디 1928』 등

06 07. 02.(목)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밀라 주택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

19세기 후반 바르셀로나는 근대 도시계획의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모토이 대지를 활용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밀라주택의 흥미로운 탄생을 살펴본다.



이병기 건축가, 국립한밭대 강의중
- 가우디의 모교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건축 전공
- 저서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밀라주택』
번역서 『장식』, 『가우디 1928』 등

07 07. 07.(화)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성가정 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 -새로운 구조, 새로운 기하학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외부에 새겨진 돌조각의 의미들, 세 개의 파사드가 전하는 성경, 기하학의 해석 등과 같은 아름다운 성당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병기 건축가, 국립한밭대 강의중
- 가우디의 모교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건축 전공
- 저서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밀라주택』
번역서 『장식』, 『가우디 1928』 등

08 07. 14.(화)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 파이프 오르간의 2,000년 여행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궁전, 교회와 성당, 그리고 현대의 콘서트홀로 이어져 온 파이프 오르간의 역사를 살펴 볼 것이다. 가우디의 아름다운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 건축과 음악이 만나는 시간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박소현 이화여대 음악대학(건반악기과) 교수,
오르가니스트
-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장

09 07. 21.(화)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가우디의 빛의 숲-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숲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내부 구조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신비로움의 극치를 만든다. 성당 내부에 스며드는 빛과 색채가 만들어 내는 공간 경험과 그 예술적·종교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정수경 인천가톨릭대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교수
- 저서 『한국의 스테인드글라스』

10 07. 22.(수)
14시~16시
참버홀 24,000원

‘영혼을 흔드는 스페인 춤’ : 플라멩코에 숨겨진 감정과 미학

플라멩코의 이론에서부터 음악과 무용에 이르기까지 무대 위 풍요로운 종합예술을 즐길 수 있는 렉처 콘서트로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 협연 : 카를로스 J(플라멩코 음악감독, 기타리스트)



롤라 장(Lola Chang)
플라멩코 안무가 · 플라멩코 아티스트
-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훈장 수훈 (2018)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낙동아트센터 970-277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Invitation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옴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어택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31회 정기연주회

부산, 말러

“지금까지의 내 교향곡들은
이 작품을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작품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관적인 비극이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환희의 근원이다.”

1910년 9월 뮌헨 초연 당시에는 <교향곡 제8번>의 연주를 위해 무려 858명의 성악가들과 171명의 연주자들이 동원되었다. 당시 최대의 연주 효과를 위해 합창단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린 탓에 오케스트라의 규모도 총보에 요구된 것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덕에 <교향곡 제8번>은 ‘천인(千人)교향곡’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말러의 일생을 통해 본다면 <교향곡 제8번>은 그의 생애 최고의 전성기에 탄생된 작품이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한 1906년 이후 말러의 삶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교향곡을 완성한 이듬해인 1907년, 말러는 장녀 마리아를 잃었고 심장 발작의 고통을 겪었으며 빈 오페라극장의 음악감독 자리를 내놓았다.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던 1910년에는 부인 알마의 외도로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어쨌든 뮌헨에서 개최된 초연은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러는 8번을 초연한 것이 자신의 작품을 초연한 마지막이었다. 그 다음 해에 말러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말러의 <교향곡 제8번>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되는’ 교향곡이다. 또한 라틴어로 된 중세의 성령 찬미가와 괴테의 『파우스트』를 하나의 이야기로 절묘하게 엮어놓은 서사이다. 1부는 중세의 찬미가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여’(Veni, creator spiritus)를 가사로 하는 열정적인 간구의 합창으로서 일종의 칸타타처럼 구성되고 2부는 파우스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음악극처럼 구성하였다. 게다가 말러가 이 교향곡에서 구사하고 있는 음악 언어 역시 새롭다. 말러의 음악에서 종종 들려오던 불안감 대신 찬란한 긍정과 사랑의 충만함이 교향곡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다.

6월 18일 부산콘서트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말러 <교향곡 제8번>이 드디어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24년부터 진행해온 ‘말러 교향곡’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로, 앞서 2024년 교향곡 제



1번 <거인>(2024. 1. 19)과 제2번 <부활>(2024. 12. 20), 2025년 제4번(2025. 4. 11)과 제3번(2025. 12. 12)을 연주하여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말러 교향곡’ 시리즈의 정점을 이루는, 그야말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는 하이 라이트 무대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성악 솔리스트가 총출동하여 압도적인 음향과 장대한 스케일로 부산콘서트홀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이 지휘를 맡아 이 거대한 음악적 여정을 이끈다. 부산시립합창단(예술감독 이기선)과 울산시립합창단(예술감독 박동희), 김해시립합창단(지휘자 최현욱), 클래식부산합창단(지휘자 김강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천경필),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전상철), 그리고 다수의 부산 출신 성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뜻깊은 의미를 더한다. 소프라노 박소영, 김은희, 박하나, 알토 정주연, 양송미, 테너 이범주, 바리톤 이장원, 베이스 송일도 등 8명의 솔리스트가 출연하여 인간의 구원과 사랑, 창조적 에너지를 노래한다.

소프라노 박소영은 2013년 보스턴 리릭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역으로 데뷔한 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글리머글라스 페스티벌 등 수십 차례 ‘밤의 여왕’ 역을 맡아 전 세계 무대에서 극찬을 받았다. 뉴욕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를 비롯해 세계적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예사 페카 살로넨과 LA 필하모

닉 공연,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내한 콘서트에 참여하는 등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를 아우르는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소프라노 김은희는 이탈리아 베로나 필하모닉 극장에서 <라 보엠>의 ‘미미’ 역으로 데뷔, ‘하늘이 내린 따뜻하고 풍부한 목소리’라는 호평에 이어 <나비부인>의 ‘초초상’ 역으로 ‘설득력 있는 높은 연기와 세련된 프레이징, 강력한 목소리로 모두를 집중시키는 가수’라는 호평을 받았다. 201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Arca d’Ora 상의 젊은 음악인 부문 성악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호남 오페라단의 <오텔로>의 ‘데스테모나’ 역, 국립오페라단의 <서부의 아가씨>의 ‘민니’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소프라노 박하나는 International Lied Competition of Japanischen Schubert-Gesellschaft 대상 및 청중상을 비롯하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Great Lakes Region 우승, 코벳 오페라 콩쿠르 1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일찍이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마술피리>, <카르멘> 등에 출연하여 호평받았으며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과 2021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과 함께 다양한 무대에서 오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정주연은 <카르멘>, <베르테르>, <파우스트>, <한여름 밤의 꿈>, <코지 판 투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메조소프라노 특유의 깊고 유연한 음색을 바탕으로, 각 작품의 언어와 스타일에 맞춘 음악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오고 있다. 말러 <대지의 노래>, 모차르트 <레퀴엠>, 베토벤 <C장조 미사> 등 주요 오라토리오 작품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성악 콩쿠르 입상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양송미는 한국인 메조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국립 오페라극장(Wiener Staatsoper)과 오스트리아의 Opern Graz에서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했다. 국립오페라단의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클래식부산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국내초연 오페라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를 비롯하여 <보리스 고두노프>, <루살카>, <베르테르>, <노르마> 등 다수 오페라의 주역을 맡았으며 2014년 여름 <City of London Festival>에서는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런던 심포니에 솔로이스트로 초청받았다. 2019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 주역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경성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테너 이범주는 세계적인 성악 콩쿠르인 베르디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이탈리아 파르마 베르디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아이다>의 라다메스 역으로 데뷔한 후 이탈리아 베르디 페스티벌 폐막식에서 로베르토 아바도의 지휘 아래 이탈리아 국민 음악인 '국가들의 찬가'를 불러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다 한국에서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부천필하모닉 콘서트오페라 바그너의 <탄호이저>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후 다수의 오페라 공연에 주역으로 출연했다. 현재는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바리톤 레오나르도 이(이장원)는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남성 최초로 우승하며 국제 무대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2019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BBC 카디프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며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차세대를 대표하는 성악가로 자리매김했다. 베를린 도이치 오페에서 한국인 최초로 오페라 <리골레토>의 타이틀 롤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현재는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의 바리톤 주역 솔리스트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이스 송일도는 제33회 Hans Gabor Belvedere 국제성악콩쿠르 3위와 Deutsche Oper am Rhein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2015/2016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영아티스로 활동하다 2017년부터는 솔로이스트로 2021년까지 활동했다. <돈 카를로>, <기사 올란도>, <살로메>, <세비야의 이발사> 등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는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말리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칸타타’ 혹은 ‘오페라’ 같은 교향곡

☞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



말리의 <교향곡 제8번>은 흔히 ‘천인(千人)교향곡’이라 불린다. 이 교향곡이 1910년 9월 12일 뮌헨에서 초연될 당시 1천 명 이상의 연주자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연에 참가한 연주 인원은 1천 명보다 더 많았다. 무려 858명의 성악가들과 171명의 연주자들이 참여했으니 다 합치면 무려 1,029명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연주 인원을 조달하기 위해 뮌헨의 합창단뿐만 아니라 비엔나와 라이프치히의 합창단까지 불러와야 했고, 초연에 참가한 8명의 독창자들도 뮌헨과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비스바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초대되었다.

<교향곡 제8번>의 초연 무대는 말리가 지휘자로서 유럽에서 행한 마지막 연주회였다. 그리고 작곡가로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준 뜻깊은 공연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때 이 연주회는 취소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말리는 뮌헨 페스티벌의 공연기획자인 에밀 구트만의 초청을 받아 ‘천인교향곡’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합창단이 제 시간 내에 자기 파트를 공부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만일 모든 조건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는 이 연주회를 무자비하게 취소할 것”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 주 뒤에 말리는 고집을 꺾고 뮌헨 연주회를 지휘하기로 했다.

말리는 <교향곡 제8번>을 쓰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말리의 부인 알마의 증언에 의하면 1906년 6월 마이에르니히에서 말리는 첫 2주 동안 창조적 무기력증에 빠져있었다. 그러다가 말리는 갑자기 작곡 오두막에서 악상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천인교향곡’의 제1부 도입부를 장식하는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여’(Veni creator spiritus)의 찬란한 선율이다. 이후 말리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작업에 몰두했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악상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갑자기 떠오른 제2부의 마지막 ‘신비의 합창’ 멜로디는 휴지 조각에 급히 메모할 정도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리는 단 8주 만에 이 같은 대작을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이 작품의 규모와 넘쳐흐르는 악상을 생각해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천인교향곡’의 특별한 점은 천 명 이상이 연주하는 곡이라는 점 뿐만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틴어로 된 중세의 성령 찬미가와 독일어로 된 괴테의 『파우스트』가 어떻게 한 작품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작성 연대가 809년으로 추정된 성령 찬미가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여’(Veni creator spiritus)와 1830-1년에 완성된 괴테의 『파우스트』 마지막 장면 사이에는 무려 1,0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으며 언어도 다르다. 그러나 음악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두 가지 텍스트는 말리의 교향곡 속에서 놀랄 만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실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텍스트는 하나의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제1부와 제2부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며, 말리는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그의 음악 속에 두 가지 텍스트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작곡가 안톤 베베른의 증언에 의하면 제1부 성령찬미가의 가사 중 “축복의 빛으로 우리 정신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Accende lumen sensibus, Infunde amorem cordibus)의 부분에 해당하는 선율적인 모티브야말로 1부와 2부를 묶는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다. 말리는 이 교향곡 속에서 ‘사랑’과 ‘빛’을 의미하는 제1부의 “Accende” 이하의 선율과 제2부에서 “사랑”(Liebe)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똑같은 선율로 작곡해 제1부와 제2부에 통일성을 부여했고, 이로써 ‘영원한 사랑’은 작품 전체를 통해 강조된다.

〈교향곡 제8번〉의 제1부가 성령 찬미가를 가사로 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 칸타타라면, 『파우스트』 마지막 부분의 줄거리를 따르고 있는 제2부는 오페라와 같다. 성령의 힘이 폭포수처럼 분출하는 제1부의 웅장한 합창에 이어, 제2부의 막이 오르면 먼저 숲속의 스산한 바람 소리를 묘사하는 오케스트라의 서주와 성스러운 은자들의 신비로운 합창이 들려온다.

이윽고 황홀경에 빠진 감격찬 신부(바리톤)가 신과의 합일의 기쁨을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명상하는 신부(베이스)는 광포한 자연과도 같은 그의 번뇌에 괴로워하며 그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전능한 사랑을 구한다. 그러자 천사들과 승천한 소년들이 나타나 “누구든 줄곧 노력하며 애쓰는 이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파우스트』의 핵심 사상을 노래하지만, 성숙한 천사들은 “지상의 찌꺼기”를 나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고하며 인간의 불완전함을 노래한다. 이윽고 젊은 천사들과 승천한 소년들이 파우스트를 보살피며 좀 더 높은 완성의 경지에 오르도록 도와주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박사(테너, 이하 ‘마리아 박사’)는 파우스트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여성, 즉 영광의 성모를 숭배한다. 이때 멀리서 영광의 성모가 떠오르는 사이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지극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주제를 연주하며 성모의 자비로움을 표현한다.

영광의 성모 앞에 세 명의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소프라노)과 사마리아 여인(알토), 그리고 이집트의 마리아(알토)로서 모두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며 파우스트를 용서해줄 것을 청한다. 그리고 제2부의 프리마돈나라 할 수 있는 그레트헨(소프라노, ‘속죄의 한 여인’이라고 표시됨)이 성모께 매달리며 그녀의 옛 연인이었던 파우스트의 구원을 간절히 청하자, 영광의 성모는 마침내 파우스트를 용서하고 하늘로 이끌어 올린다. 이때 영광의 성모(소프라노)가 부르는 대사는 단지 두 줄밖에 안 되지만 그녀는 이 교향곡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서 파우스트를 구원하는 영원한 여성상이다. 이윽고 마리아 박사가 엎드려 경배하며 “동정녀, 어머니, 여왕, 여신”이라 외치며 영광의 성모를 찬양하고, 파우스트가 첼레스타와 피아노, 하프가 만들어내는 영롱한 음악에 맞추어 승천하자 어디선가 아주 고요하게 시작된 신비의 합창이 점차 벽찬 환희로 상승하고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천인교향곡’의 대미를 장식한다.

위기의 시대, 존재를 묻다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The 22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



6월 2일(화)-7일(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해운대 구남로, 부산역 광장,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안느-로르 루이 <나무의 존재(ÉTRE DE BOIS)>



기욤 코테 <번 베이비, 번(BURN BABY, BURN)>



강미리할무용단의 <신이적고(新異의鼓)>

아름다운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 세계 춤의 향연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The 22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6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부산국제무용제는 2005년 제1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여 년간 세계적인 무용축제로 성장해 오며 춤이 있어 더욱 특별한 도시 부산을 알려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부산국제무용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 44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60여 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는 ‘위기의 시대, 존재를 묻다’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무용이 던지는 철학적 화두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6월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개막식 후 열리는 특별초청공연에서는 캐나다 퀘벡 현대무용의 정수, ‘플러브 에스파스(Fleuve Espace)’와 ‘코테 당스(Côté Danse)’의 대표 작품을 더블 빌(Double Bill, 2편 동시 상연) 공연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두 작품은 올해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로, 기후 위기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작품인 안무가 안느-로르 루이의 <나무의 존재(ÉTRE DE BOIS)>는 올해 처음 시도된 ‘해변특화공연’ 공모 선정작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퀘벡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내며 우리 존재의 뿌리를 되묻는다. 두 번째 작품인 <번 베이비, 번(BURN BABY, BURN)>은 기욤 코테의 역동적인

안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열망과 위기감을 강렬한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은 ‘자연으로의 회귀’와 ‘파괴되어 가는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한다. 고요한 생명의 시간에서 불타는 욕망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 특별한 여정은 관객들에게 존재에 대한 깊은 감각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부산국제무용제를 대표하는 공식초청 프로그램은 6월 6일과 7일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바다를 배경으로 초대형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강미리할무용단의 <신이적고(新異의鼓)>, 홍콩 Y SPACE의 <Air and Breath II (Excerpt)> 등 국내의 초청작 18편이 시민들과 만난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무용예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특별 기획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프랑스-라오스 출신의 안무가 올레 캄찰라가 스페셜 아티스트로 참여하여 프린지, 거리공연 등을 통해 그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이며, ‘부산-칸 도시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적 명성의 ‘칸 로젤라하이타워 주니어발레단’이 공식초청 공연과 오픈 워크숍을 갖는다. 이밖에 7월에는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안무 마스터 따우픽 이제디우가 이끄는 ‘BIDF 안무가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로 부산과의 자매도시 교류 10주년을 맞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Ulaanbaatar theatre’가 이번에 부산을 방문하면서 부산국제무용제가 이제는 단순한 예술축제를 넘어 국제 문화교류의 장으로 성장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BIDF 프린지>의 신설이다. 자유로운 참가 창작 플랫폼인 프린지를 통해 장르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무대를 지원하고, 국제 공연예술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부산을 무용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외 페스티벌 예술감독과 프로그래머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예술가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9개국 30여 작품이 지원했으며, 이중 18개 작품이 6월 2일과 3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과 로비에서 관객과 만난다.

미래 무용계를 이끌 안무가를 발굴하는 ‘AK21 안무가육성경연’ 결선은 6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해외 기관 및 축제 예술감독 6인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멘토링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또한, 단순한 경쟁을 넘어 최우수 안무가에게 해외 진출 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글로벌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6월 4일과 7일, 해운대 구남로 거리와 부산역 일대에서는 거리공연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축제의 열기를 도심 곳곳에 전할 예정이다.



홍콩 Y SPACE의 <Air and Breath II (Excerpt)>



몽골 Ulaanbaatar theatre



덴마크 Uppercut Dance Theater

주요 일정



제1회 BIDF 프린지

6월 2일(화) 19:00, 3일(수) 1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로비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공연

6월 4일(목) 17:00 해운대 구남로 거리,
7일(일) 12:00 부산역 광장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식

6월 5일(금) 18: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특별초청공연

<나무의 존재>, <번 베이비, 번>

6월 5일(금) 19:30, 6일(토) 1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공식초청 프로그램 및 해변특화공연

6월 6일(토)-7일(일) 18: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AK21 안무가육성경연 결선

6월 7일(일)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래된 사랑,
끝나지 않은 배신

화류비련극 **홍도**



2026년 <홍도>가 다시 돌아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격조있는 화류비련극으로 재탄생시킨 <홍도>는 2014년 고선웅 연출가에 의해 전격 각색되어 관객과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았다. 당시 '2014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시작으로 '2015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2016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및 연출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극장 초청 공연 당시 전석 매진과 기립박수를 기록하며 해외 관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신파극의 현대적 재해석

<홍도>는 오빠의 학업을 위해 기생이 된 '홍도'와 명문가 자제 '광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랑과 희생, 욕망과 배신의 감정을 밀도 있게 풀어낸 작품이다. 여기에 고선웅 연출 특유의 속도감 있는 대사와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더해지며 신파극 특유의 과장된 정서를 견어내고 '고선웅표 신파'를 세련되고 깊이 있게 전달한다.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 미학 역시 돋보인다.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무대 위, 사람 인(人) 자 형태의 구조물만으로 공간을 완성하는 절제된 연출은 강렬한 여백의미를 만들어낸다. 또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차이킴(김영진)의 한복 의상은 작품의 미장센을 더욱 극대화하며 한국적 아름다움과 정서를 인상적으로 펼쳐낸다.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깊어진 감정선과 밀도 높은 무대

10년 만에 돌아온 이번 시즌에서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앙상블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타이틀롤 '홍도' 역에는 배우 박하선(12일)과 예지원(13일)이 각각 출연해 서로 다른 매력의 홍도를 선보인다. 박하선은 순수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홍도를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며, 초연 당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예지원은 한층 농익은 감정 연기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배우 정보석이 광호의 아버지 역으로 합류해 극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준다. 세 배우가 만들어낼 밀도 높은 감정선과 긴장감 넘치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믿고 보는 작가 겸 연출가 고선웅

흥행과 작품성을 놓치지 않는 스타 연출가 고선웅은 1999년 신춘문예에서 희곡 <우울한 풍경 속의 여자>로 당선된 후 연극 <락희맨쇼>의



작가로 무대에 정식 입문했다. 이후 2002년 연극 <데미안>을 통해 연출로 이름을 올렸고, 2005년에는 극공작소 마방진을 창단하며 창작과 연출 활동의 폭을 넓혔다. <회란기>, <낙타상자>, <리어왕외전>, <칼로막베스>, <홍도>, <마리화나> 등을 쓰고 연



연출가 고선웅

출하며 연극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뮤지컬 <베르테르>, <광화문연가>, <아리랑>, <광주>, 창극 <귀토>, <변강쇠 집 짝고 웅녀>, <홍보씨>, 소리극 <서편제>, The Original, 오페라 <1945>, <맥베스> 등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이 믿고 보는 작가 겸 연출가로 자리 잡았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의 총연출자로 활약했으며,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서울시극단 단장을 역임했다.

그가 창단하고 예술감독으로 있는 극공작소 마방진은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마방진(Magic Square)'이라는 이름처럼 세상에 마술을 거는 기발한 상상력과 역동적인 한 칸들의 조합을 통해 관객을 사로잡아왔으며 <홍도>를 비롯하여 <회란기>, <나는 광주에 없었다>, <낙타상자>, <리어외전>, <라빠르트망>, <칼로 막베스>, <들소의 달>, <마리화나> 등 수많은 대표작을 무대에 올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6회 정기연주회

국악의 날 기념 공연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국악의 날’은 지난해, 우리 전통음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세종대왕이 지은 악곡 <여민락>이 최초로 실록에 기록된 날인 6월 5일로 지정됐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국악 단체, 시민 예술인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 음악이 지닌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적 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국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여준다. 지휘는 이동훈 예술감독, 사회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한 김수일이 맡아 공연을 진행한다.

첫 무대로는 조선 시대 왕의 행차와 군례의식에 사용되던 대표적인 전통 균악인 <대취타>로 ‘국악의 날’을 기념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40년 전통의 민간 국악단체인 어울림국악연구회와 함께하는 정악합주 무대로, <평조회상> 중 <염불도드리, 타령>을 들려준다. 특히 지난 1986년 창단한 어울림국악연구회는 당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실시한 단소강습 수료생들로 창단된 단체로, 국악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12년 부산 최초로 설립된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인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과는 한국 전통춤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가야금 선율로 표현한 황병기 곡 <침향무>를 합주로 들려준다. 지난 2009년 부산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박대성류아쟁산조>는 아쟁 특유의 중후하고 깊은 음색과 함께 섬세하고 유려한 가락이 특징으로, 해당 무형유산의 원형을 전승하고 있는 박대성류아쟁산조보존회에서 연주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한국 민속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여러 악기가 즉흥적으로 선율을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한국 전통 합주곡인 <시나위>와 한과 슬픔의 정서를 담아낸 <살풀이>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박창희가 연주에 맞춰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무용으로 꼽히는 <살풀이>를 선보인다. 깊고 구성진 가락과 애절한 정서, 맑고 세련된 선율과 섬세한 시김새가 각각 특징인 <남도민요&경기민요> 무대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성악부와 함께하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농악보존회가 서구 아미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아미농악>으로도 불렸던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인 <부산농악>을 들려준다.



예술감독 이동훈



사회 김수일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2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 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두 번째 무대가 6월 1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Sound of Busan: 브람스 사이클>에 이은 (재)부산문화회관의 기획공연 시리즈로, 오랫동안 부산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해온 민간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후기낭만주의의 거장 차이콥스키를 통해 더욱 정제된 구성과 새로운 해석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의 장대한 서막을 여는 <1812 서곡>을 시작으로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교향곡 제5번> 등 차이콥스키 대표작 세 곡을 들려준다. 섬세함과 감성적인 표현으로 깊은 감동을 전하는 지휘자 홍성택은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으로 활동하다 Russian Moscow Gnesins Academy of Music에서 오케스트라 지휘과정을 졸업한 후 그동안 1,300여 회에 이르는 무대를 통해 완성도 높은 해석과 균형 잡힌 사운드로 수많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현재는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한 열정과 노력을 펼치고 있다.

18세기 고전주의 양식에 대한 차이콥스키의 애정을 담은 첼로 레퍼토리의 정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첼리스트 송영훈은 9세의 나이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로 데뷔한 후 2001년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02년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특히 클래식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며 매년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는 송영훈은 2015년부터는 KBS CLASSIC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진행자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알리는데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낭만주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교향곡 제4번>과 함께 '운명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제5번>은 '운명'을 주제로 한 인간의 고뇌와 극복, 그리고 승리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차이콥스키 특유의 극적 감정선과 완성도 높은 구성미를 보여준다.



지휘 홍성택



첼로 송영훈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82회 정기공연

타오

한국형 사회파 미스터리 of 새로운 작법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2024년 한국추리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세화 작가의 <타오>가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타오>는 대학교 인근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연쇄살인과 폭행 사건을 다룬 심리 추적극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대립 뒤에 숨겨진 재개발 이권 다툼과 인간의 본초적인 혐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쇄적인 비극을 수사물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연인 '타오'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후 극의 중심은 대학교 후문 이슬람 사원 근처 골목에서 발생한 권윤정 교수 습격 사건으로 옮겨가고 연이어 이슬람 사원 건립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윤미라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사건은 연쇄살인으로 번져간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이영태 목사는 주민들의 혐오 정서를 부추기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 <타오>는 범인의 정체를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타자에 대한 혐오, 이기심이 만들어낸 참혹한 풍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세화 작가는 지난 30여 년간 언론 현장에서 사회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 출신 소설가로, 단편 추리소설 <붉은 벽>으로 <계간 미스터리>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이래, 한국추리문학상의 신예상, 황금펜상에 이어 <타오>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추리문학상 전 부문을 석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냉철한 관찰력과 사실적 문체로, 우리 시대의 구조적 폭력과 무관심을 문학적으로 포착하며 현대 한국 미스터리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출 허석민

이번 무대의 각색과 연출을 맡은 허석민은 <타오>가 단순히 범인을 추적하는 범죄극이 아닌,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지쳐가는지를 무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 속 수사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객은 특정 범인의 얼굴보다는 타오를 둘러싼 사회의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허석민 연출가는 이번 작품에서 형사 오지영의 시선을 따라 타오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복원하면서 관객들 역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한다.

극단 따뜻한 사람 대표이자 연출가인 허석민은 2021 대한민국 연극대상 <젊은 연극인상>을 비롯하여 2022 제22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차세대 연출가전 신진상, 2024 제7회 작강연극제 한형석 연출상, 2024 제18회 부산연극상 <젊은 연극인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한국연출가협회가 주최하는 제34회 대한민국 신춘문에 페스티벌에 연출가로 참여했다. 특히 2018년 김문홍 희곡상을 수상하고 2022년 밀양공연예술축제 차세대 연출가전 신진상·연기상, 2024년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우수희곡상·연기상 등을 수상한 <컨테이너>는 2024년 제31회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연극제에 이어 지난해 세계 최대 민간 공연 예술축제 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Avignon Off Festival)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7월 2일-3일 목-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가우디의 예술노트**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건축으로 구현하며 오늘 날까지도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로 손꼽히는 안토니 가우디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특별강좌 <가우디의 예술노트>.

단순한 건축 소개를 넘어 역사, 미술, 건축, 음악,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인문 프로그램으로, 가우디의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주요 일정

- 5월 29일(금)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화양연화
• 강사/임승휘(선문대 사학과 교수)
- 6월 2일(화) 마드리드 미술관 산책
• 강사/이현(미술사가)
- 6월 9일(화) 바로셀로나 미술관 산책
• 강사/이현(미술사가)

- 6월 16일(화) 가우디_자연을 사랑한 건축가
• 강사/이병기(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 6월 23일(화) 구엘 저택_어제의 양치기, 오늘의 귀족
• 강사/이병기(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 7월 2일(목) 밀라 주택_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
• 강사/이병기(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 7월 7일(화) 성가정 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_
새로운 구조, 새로운 기하학
• 강사/이병기(건축가, 아키텐스 대표)
- 7월 14일(화) 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_파이프 오르
간의 2,000년 여행
• 강사/박소현(이화여대 교수, 오르가니스트)
- 7월 21일(화) 가우디의 빛의 숲_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 강사/정수경(인천가톨릭대 대학원 그리스도교미
술학과 교수)
- 7월 22일(수) 영혼을 흔드는 춤: 플라멩코에 숨겨
진 감정과 미학
• 강사/롤라 장(플라멩코 안무가)

- 📅 5월 29일(금)-7월 22일(수) 오후 2:00 챔버홀
※ 상세일정 홈페이지 확인
- 🎫 전석 2만4천원
-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6 독일 초청 연주 프리뷰 콘서트
Guitar Dialogue**

부산의 작곡가, 기타리스트들이 세계 무대를 향한 여정을 앞두고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6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초청연주를 앞두고 마련된 프리뷰 공연으로, 기타 트리오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음색과 조화의 미학 속에서 부산 창작음악의 현재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특히 각기 다른 음악적 언어를 지닌 작곡가들의 작품과 이를 섬세하게 구현하는 연주자들의 해석이 어우러져 동시대 음악의 흐름을 깊이있게 감상할 수 있다.

- 작곡/백현주, 진소영, 김은진
- 기타/김경태, 정어진, 박정현

- 📅 6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 🎫 전석 3만원
- ☎ 루체데음악연구소 513-1009



**드미트리 핀츠크&김대훈
색소폰 듀오 리사이틀**

차세대 색소포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드미트리 핀츠크와 김대훈의 듀오 리사이틀.

드미트리 핀츠크는 2019 독일 뤼벡 국제콩쿠르 'Deutschland' 1위, 베를린 국제음악콩쿠르 그랑프리, 2023 Andorra Sax Competition 최연소 우승 등 국제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와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 Master 과정을 졸업한 김대훈은 일방통행 색소폰 앙상블, Sfk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김예빈

- 📅 6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 🎫 전석 2만원
- ☎ 아트브릿지 음악연습실 010-8567-3502



2026 AK21 안무가 육성경연

부산국제무용제(BIDF)가 매년 역량있는 젊은 안무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하는 <2026 AK21 안무가 육성경연>.

올해는 부정적인 언어가 지닌 힘과 그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순간에 주목한 임승훈의 <너 싫어>, 욕망과 현실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현대 소비문화를 다룬 윤희섭의 <Royal blue>, 한 가정이 출항에서 귀환까지 겪는 내외적 여정을 현대무용의 언어로 풀어낸 이종윤의 <만선>, 현대인의 단절된 일상 속에서 9명의 퍼포머가 신체와 감각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탐색하는 배현우의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등 4개 작품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 📅 6월 7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제20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20th 기념 연주회 with Friends**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최낙주는 그동안 독주회 외에도 체코 아나첵 챔버오케스트라, 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아울로스, 서울 아트플러 등과 협연했으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멤버로 활동했다. 최낙주는 현재 동의대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장효진 • 호른/안주환 • 첼로/강찬욱

- 📅 6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 🎫 전석 2만원
- ☎ 최낙주 스튜디오 010-4536-2351



간판테부산 제4회 공연
The Best of Opera

지난 2022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유학한 부산의 성악가들로 결성된 간판테부산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로 베르디, 푸치니, 모차르트 등 주요 작곡가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고문/손옥 • 회장/이은미
- 연출/이병웅
- 출연/이은미, 한인숙, 이수진, 윤비연, 김서영, 박해미, 박은경, 성미진, 김준연, 조성흥, 정필운, 김보우, 이기백, 최성근, 송지은, 신세라

- 📅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 🎫 R석(1층) 5만원, S석(2층) 3만원(예매시 20% 할인)
- ☎ 간판테부산 010-9550-4649



제9회 테너 양승엽 독창회
한국가곡의 밤 시즌4

부산의 대표 성악가 테너 양승엽이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는 해석과 따뜻한 음색으로 전하는 <한국가곡의 밤> 네 번째 무대.

섬세한 표현력과 풍부한 성량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양승엽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가곡 특유의 서정성과 감성을 더욱 깊이 있게 들려주며, 가곡이 지닌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해설을 통해 한국가곡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피아노/서혜리 • 해설/정두환

- 📅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 🎫 전석 2만원
- ☎ 문화유족집단 동행 010-7767-4390



제2회 라온콰이어 정기연주회

‘즐거움’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라온’처럼 노래로 일상의 기쁨을 나누고자 모인 라온콰이어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라온콰이어는 지난 2022년 창단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라온콰이어 드림콘서트, 부산합창제, 부산진구합창제 외에도 KNN방송교향악단, 이안오케스트라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이종석 • 피아노/신선화
- 단장/정원철
- 우정출연/멜로디다이합창단, 싱글리합창단

-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 🎫 무료(10세 이상 관람)
- ☎ 라온콰이어 010-4180-1961(단장), 010-7545-3875(부단장)



론 브랜튼 솔로 피아노 콘서트
피아노로 쓰는 시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론 브랜튼 솔로 피아노 콘서트>.

론 브랜튼은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적 감성과 뛰어난 테크닉을 갖춘 실력파 재즈 피아니스트로, 2001년 한국으로 건너와 론 브랜튼 재즈그룹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 제이콥스 스쿨 오브 뮤직에서 성악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의 딸 알렉스 도언 브랜튼이 특별 출연하여 함께 무대를 꾸민다.

-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 🎫 전석 5만5천원
- ☎ 주문화락 1600-1602



이탈리아 피아노트리오 코발트 초청콘서트

유럽 전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피아노트리오 코발트의 무대.

피아니스트 리카르도 론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레네 피오리토, 첼리스트 로렌초 구이다로 구성된 피아노트리오 코발트는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제45회 프랑코 아비아티 음악비평가상 파롤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진이 특별출연, 코발트의 반주로 <그리운 금강산>과 <입맞춤(Il bacio)>을 들려준다.

- 📅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 🎫 전석 5만원
- ☎ 부산문화 1600-1803



테너 조윤희 독창회
Hommage à Norman Shetler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테너 조윤희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2024년 별세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독일 가곡 반주의 거장 노먼 쉘러의 예술과 음악을 기리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제자인 테너 조윤희와 피아니스트 박지혜의 헌정 무대로, 그가 사랑했던 가곡과 음악을 통해 그의 따뜻한 예술혼과 깊은 음악적 유산을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사전예매시 50% 할인)
-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더부산콘서트라이어 제2회 정기연주회

2023년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 순수 아마추어합창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더부산콘서트라이어 정기연주회.

더부산콘서트라이어는 2024년 12월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 및 가요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전상철 • 피아노/강민경
- 특별출연/테너 조운환, 엄마랑 아이랑 합창단(지휘/김종석)

-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 🎫 초대
- ☎ 더부산콘서트라이어 010-9902-1844



2026 소통왕 말자쇼 in Busan

개그맨 김영희의 거침없는 입담을 앞세운 세대 공감 토크쇼 <2026 소통왕 말자쇼> 부산무대.

<개그콘서트> 코너로 방영된 <소통왕 말자할매>에서 시작된 스탠딩 코미디로,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말자할매의 더 자유롭고 솔직한 토크를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토크 콘서트이다.

개그맨 정범균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진솔한 이야기를 객석의 관객과 즉석에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만 19세 이상 관람)
- ☎ 썬플레이유 1555-2864



하지희 가야금 독주회
너울시리즈V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전바탕

정악, 산조, 민속악을 두루 아우르며 전통음악의 본질을 탐구하는 동시에 현대 창작음악과의 접점을 넓혀온 하지희 가야금 독주회.

하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부산대학교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제25회 고령 전국 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하지희의 열 세번째 독주회이자 '너울'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들려준다.

- 장단/윤승환
- 📅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 ☎ 하지희 010-9310-3966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대소동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3D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꼬마버스 타요-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대소동>.

빨리 어른이 되어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 꼬마버스 친구들.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지팡이 덕분에 어른이 되지만, 진짜 어른이 되는 건 너무 힘들데...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담아낸 이번 무대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와 교육적인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 6월 13일-1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 🎫 전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 ☎ 썬아트팩토리 1800-5932



2026 부산시니어합창제
세월의 울림, 희망의 하모니

부산의 시니어합창단들이 펼치는 합창의 대향연 <2026 부산시니어합창제>.

부산은파합창단을 비롯하여 11개 합창단이 출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출연
부산은파합창단, 금정구시니어합창단, 기장청춘실버합창단, 남구시니어합창단, 더어울림(대불·솔내음)합창단, 부산대시니어 경향해피파이어,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웬브론 레인보우 합창단, 예그리나합창단, 예그린합창단, 유나이트드 하모니 콰이어

- 특별출연/해피양상블, 춤마루무용단
- 📅 6월 18일 목요일 오후 3:00 대극장
- 🎫 초대
- ☎ 문화공감 010-2576-8766



2026 김동하 Stand-up Comedy Tour
Life Goes On

2018년 <스탠드업 코미디 스테이지 6>으로 데뷔해 스탠드업 코미디 강자로 자리매김한 코미디언 김동하의 스탠드업 코미디 부산무대.

남다른 순발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동하는 이미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이 누적 조회수 3억 뷰를 돌파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세 번의 전국투어를 전석 매진으로 완주한 김동하는 이번 무대에서도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신선한 이야기와 매 공연 달라지는 전개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만 19세 이상 관람)
- ☎ 엠스타컴퍼니 1599-1216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부산 지역 연극단체와 해외 연출가 간의 창작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교류 무대.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사전행사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해외 연출가들의 협업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17일(수) 극단 아이컨텍 <다정한 상처>

몸과 언어, 정체성, 친밀성의 경계를 탐구해온 불가리아의 연출가이자 퍼포머인 아나스타샤 디미트로바와 익숙한 연극 형식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온 극단 아이컨텍의 무대.

사랑의 순수한 의도가 개인의 두려움, 습관, 서툰

타이밍이라는 필터를 거치며 어떻게 상처(가시)로 변질되는지를 시각화한 <다정한 상처>를 선보인다.



19일(금) 극예술실험집단 초 <MIX JAN>

일본 엔터테인먼트 집단 '게키게키(ゲキゲキ)' 연출가이자 배우로 무대와 영상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후루카와 요시미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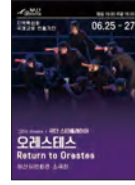
연극의 새로운 형식과 양식을 위해 실험하고 모험하는 극예술집단 초의 무대.

오사카에서 공연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던 단편 코미디극 <화이트아웃(Whiteout)>, <바보와 천재>, <일루미네이트(Illuminate)> 등 세 작품을 상연한다. 특히 이 작품들은 모두 일본 특유의 '웃음' 요소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로, 독자적인 템포와 '마(間, 여백의 미)'를 살린 연출이 특징이다.

21일(일) 극단 우릿 <바나의 조각들>

연극과 무용, 신체 기반 창작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폴란드의 국제적인 연출가 야쿠프 마르고샤크와 배우의 몸과 언어, 리듬, 이미지를 중심으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극단 우릿의 무대.

체호프의 <바나 아저씨> 속 인물들이 지닌 숨겨진 심리와 감정의 조각들을 탐구하는 <바나의 조각들>을 선보인다.



25일(목)-27일(토) 극단 스타 플레이어 <오레스테스>

그리스 데살로니키의 니스 모르프스 극단 창립자로 베로이아 주립극장 예술감독을 역임한 이아니스 파라스케보폴로스와 부산

연극협회 청년 해외진출 프로젝트로 첫발을 내딛은 후 다양한 창작과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 스타 플레이어의 무대.

어머니를 살해한 오레스테스의 비극을 통해 고대 신화를 오늘의 현실로 끌어온 <오레스테스>로 관객과 만난다.

28일(일) 낭독극 스테이지

페르시아 시인 아타르의 동명의 시를 바탕으로 한 상징적인 무대극인 극단 맥의 <새들의 회의>와 시대를 뛰어넘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북의 <맹진사댁 경사>를 낭독극으로 선보인다.

- ☎ 6월 17일(수)-2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30(28일 오전 10:00) 소극장
- 🎫 전석 2만원
- ☎ (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



We Love Korea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의 상처와 기억을 음악으로 되새기고자 마련한 하나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아픔과 그리움, 희생의 순간들을 선율에 담아 관객과 함께 나누는 무대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베토벤 <교향곡 제7번>으로 희망과 감동을 전한다.

- 지휘/이기균
- 테너/김지호, 이신범, 최용준
- 바리톤/이태영
- 소프라노/장은영, 정성윤, 조민서, 윤정인

- ☎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 하나심포니오케스트라 010-2183-7790



가족뮤지컬 넘버블록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숫자들의 놀라운 모험 이야기 <넘버블록스>.

숫자를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익히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로, 영국 BBC 방영 인기 교육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원작자인 조 엘리엇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높은 완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원작의 교육적 메시지를 살리면서도 아이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음악과 안무를 더하고 화려한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 ☎ 6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 🎫 R석 7만원, S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 ☎ 브러쉬씨어터 1600-8534



한울림합창단 제46회 정기연주회 The Latin Jazz Mass

지난 1979년 창단된 후 47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합창단으로 활동해 온 한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2005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한울림합창단은 그동안 <다시 부르는 겨레의 노래> 전국 5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비롯하여 창작 연가곡 <아름다운 부산>,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한국 초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작곡가 마틴 볼린거의 <The Latin Jazz Mass>를 들려준다.

- 지휘/김창돈 • 피아노/전해란
- 색소폰/이병주 • 베이스/윤혜성 • 드럼/김진훈

- ☎ 6월 30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 🎫 무료
- ☎ 예술기획 010-9044-7576



**2026 NAC 레저콘서트
BSO솔로이스츠 실내악**

오케스트라의 중심을 이루는 악장·수석·부수석 단원들의 연주에 음악평론가 김윤선의 해설이 더해져, 실내악의 깊이와 감정의 결을 보다 선명하게 풀어내는 BSO솔로이스츠의 실내악 시리즈.

7일(일) 현악6중주&현악8중주

풍부한 음향과 섬세한 호흡이 교차하는 현악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브람스/현악6중주 제1번

멘델스존/현악8중주

- 바이올린/김주영, 진혜빈, 주해리, 박은경
- 비올라/박지수, 강석진
- 첼로/김새로미, 정지은
- 해설/김윤선(음악평론가)

14일(일) 목관5중주&금관5중주

목관의 포근함과 금관의 화려한 울림이 조화를 이루며, 친숙한 선율과 다채로운 편곡으로 실내악의 매력을 전한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모음곡

아놀드/금관5중주

- 플루트/안병건 • 오보에/조성현
- 클라리넷/백동훈 • 바순/양희경
- 호른/이민정, 강민주 • 트럼펫/최혁준, 강동학
- 트롬본/손무정 • 튜바/서영찬
- 해설/김윤선(음악평론가)



- 🎧 6월 7일(일), 14일(일) 오후 5:0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 낙동아트센터 970-2771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6회 협주곡의 밤**

2007년 창단 후 매 공연마다 진정성 있는 해석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오창록)가 차세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출연

박예나(분포초등 5학년), 이서현(부산예술중 1학년), 김소윤(부산예술중 2학년, 이상 클라리넷), 이다은(부산예고 1학년, 플루트), 김하윤(경일중 3학년, 트럼펫), 박혜령(주촌초등 6학년, 바이올린), 강다연(부산예고 3학년), 조동준(부산예고 1학년, 이상 첼로), 도혜빈(부산예고 2학년, 거문고)

- 🎧 6월 7일 일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초대
- ☎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7535-6452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을숙도문화회관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예술공감> 6월 무대.



9일(제89회) 지브리와 함께하는 클래식

우리 귀에 친숙한 지브리 곡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클래식 명곡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송정의 복합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와 함께 하는 무대로,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과 영상으로 관객들에게 더 깊은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16일(제90회) 습(합)

한국 전통음악의 정서와 국악기의 호흡을 중심에 둔 동시대 음악 프로젝트 'The Crane(더 크레인)'의 무대.

The Crane(더 크레인)은 피아노, 베이스, 바이올린, 장구, 해금으로 구성된 앙상블로, 국악기 고유의 음색과 장단, 미세한 리듬의 흔들림을 바탕으로 서양 클래식과 재즈의 어법을 유연하게 결합시켜 '한국발 사운드'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프로그램

지영희류 해금산조, 바이올린과 해금을 위한 협주곡 BWV 1043(바흐), 시간의 실루엣(민주신), 상주아리랑, 2년 후(민주신) 등 수곡

- 바이올린/조혜운 • 피아노/민주신
- 해금/고수정 • 베이스/김대경
- 장구/안유진



23일(제91회) 소리로 만나는 마음의 풍경

피아노라는 악기와 피아노 듀오라는 장르를 통해 우리 내면에 자리한 다양한 감정과 기억, 그리고 정서적인 풍경을 음악으로 풀어내어 관객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마련한 아인 클링피아노앙상블의 무대.

- 연주/서혜원, 심하정, 김진희, 반지영, 허부성, 이현욱, 김혜선, 박소정, 이소진(게스트), 박필은

- 🎧 매주 화요일 오후 7:30(30일 공연없음)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소프라노 김유미&테너 장주훈 듀오콘서트
빛나는 당신을 위해**

서울대학교 동문인 소프라노 김유미와 테너 장주훈이 함께하는 듀오콘서트.

김유미는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석사 및 연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파리시립음악원과 말메종시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유럽에서 폭넓은 연주경험을 쌓아왔다. 장주훈은 미국 매네스옴대와 독일 뉘른베르크옴대 석사과정을 거친 후 그동안 오페라 레퍼토리의 주-조역으로 폭넓게 활약하며 풍부한 무대경험을 쌓았다.

- 피아노/유건우

- 🎧 6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R석 2만원, S석 1만원
-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6월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열리는 금정문화회관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금정수요음악회'.



10일(제928회) 프로인트엠 피아노양상블과 함께하는 낭만의 미학 <교육자로서의 낭만 작곡가, 음악의 대화>
연주자들 간의 호흡과 교감이 중심이 되는 피아노 양상블의 아름다움을 통해 서로 다른 마음이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관객과 함께 나눴다.

• 피아노/강형은, 김민주, 신희정, 윤지영



17일(제929회) 문학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 2 <마지막 칸타타>
글의 즐거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재로 음악이 등장하는 특별한 무대 <마지막 칸타타>.

바흐에서 모차르트, 베토벤을 거쳐 바그너, 말러로 이어지는 음악을 소설의 전개에 따라 연주하여 소설의 장면과 내용을 음악을 통해 즐겨볼 수 있다.

• 플루트/황미리 • 클래식기타/김경태
• 피아노/김재준 • 퍼커션/이영훈



서혜원 피아노 독주회
The Seasons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원의 솔로 리사이틀.

<The Seasons>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크랴빈의 작품을 통해 러시아 낭만 피아노음악의 흐름을 조명한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사계(full cycle)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스크랴빈/판타지 소나타 등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초대
서혜원 010-2545-2513

• 반도네온/김종완 • 콘트라베이스/박예송



24일(제930회) 초심으로
부산 출신 2세대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그동안 솔리스트뿐 아니라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실내악연주자로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백재진은 현재 비르투오조양상블, 부산트리오 리더, 부산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더 날개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의대학교 명예교수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도 힘써왔다.

<초심으로>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989 귀국 독주회에서 연주했던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와 프록코피예프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을 30여 년간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김민선과 함께 연주한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금정문화회관 519-5664



해운대문화회관 오페라떼 콘서트 시즌3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 세비야의 이발사

해운대문화회관이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오페라떼 콘서트 시즌3 무대.

이번 시즌3 무대에서는 세계 명작 오페라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작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맥락을 콘서트가이드 김성민의 해설로 풀어낸다.

6월에는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만날 수 있다.

• 테너/장지현 • 바리톤/유용준, 한정현
• 베이스바리톤/박순기 • 소프라노/양기현
• 피아노/최승희 • 콘서트가이드/김성민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R석 2만원, S석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여름 아침, 피아노와 노래 그리고 선율
피아니스트 최지은과 함께하는 Summer Story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지은과 함께하는 모닝콘서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피바디음대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지은은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고 수회의 독주회 및 협연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리톤 문정현,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종과 함께 청량한 여름 아침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바리톤/문정현(동아대 교수) • 바이올린/조무종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초대
최지은 010-2333-2544



부산하모니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사랑스럽게 그러나 힘있게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흥선합창단인 부산하모니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합창곡 외에도 '2026 하모니 창작합창 작곡공모전'에서 입상한 <합창이라는 무대>(함정민 곡), <봄바람 불 때에 첫눈>(전종범 곡), <황혼이 바다가 되어>(김정현 곡) 등 세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김민선
• 특별연주/Ensemble Fleur
• 드림/정효민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초대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2026 두레라움 토요일외콘서트×뽕타스틱마켓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감사 영화음악 콘서트

도심 속 야외에서 클래식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2026 두레라움 토요일외콘서트.

부산 지역 아티스트 24인으로 결성된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가 출연,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OST와 함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으로 야외극장의 밤을 수놓는다. 특히 올해는 로컬 푸드마켓인 '뽕타스틱마켓'과 협업하여 공연과 함께 부산의 실력 있는 생산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와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지휘, 해설/정두환
- 연주/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

-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 🎟 무료
-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제3회 THE올림CHOIR 정기연주회 하이든 전쟁미사

조화로운 울림, 마음에 오래 남는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모인 더올림콰이어 정기연주회.

지난 2016년 11월 10일 결성 후 올해로 창단 10년 차를 맞은 더올림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한 하이든의 <전쟁미사>에 이어 한국 가곡과 가요를 들려준다.

- 단장/유도훈 • 지휘/전상철
- 반주/최여진 • 오케스트라/HK양상블
- 소프라노/정혜인 • 알토/정수임
- 테너/홍준표 • 베이스/박유준
- 특별출연/엄마랑 아이랑 합창단

-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초대
- ☎ 더올림콰이어 010-3536-1536



6월 아인이 전하는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퓨전 오키리나 연주팀 아인(Ein)의 무대.

아인(Ein)은 지난 2002년 창단 이후 오키리나와 로우휘슬의 깊은 울림을 리듬감 있는 피아노 선율에 담아 관객과 만나고 있다.

특히 매 공연마다 '오키리나 소리로 지구가 품은 이야기를 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무대에서 온 아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 🎟 무료
- ☎ 아인 010-5423-7460



지브리와 사랑에 빠지다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원령공주>, <벼랑 위의 포뇨>,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대중들에게도 친숙하고 감성적인 지브리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추억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바이올린/권수진 • 첼로/이희수
- 클라리넷/김보경 • 피아노/박현우
- 퍼커션, 해설/이상준

- 📍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전석 40,000원
- ☎ 스테이지M 0507-1338-4810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 onStage The Voyager <Maiden Vessel>

국악과 재즈가 결합된 특별한 무대, 더 보이저(The Voyager)의 <Maiden Vessel>.

베이스 김대경을 중심으로 피아노 민주신, 대금 고현아, 장구 안유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으로, 서로 다른 장르와 악기가 만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며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선보인다.

특히 관객들은 이들이 만든 음악적 공간 'Vessel'에 탑승한 'Voyager'가 되어 함께 항해하듯 공연을 즐길 수 있다.

- 📍 6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 🎟 전석 1만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Moments Musicaux

명확한 해석과 풍부한 감성, 깊이 있는 해석으로 섬세한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의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보스턴대학교에서 수학하고 국내외 주요 콩쿠르 입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이자 부산피아노노우협회 회장으로서 연주와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와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을 깊은 서정성과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로 들려준다.

- 📍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Two Languages: Trio x Trio

그동안 부산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 프로젝트를 선보여온 크레센트 솔로이스츠의 특별한 무대로, 클래식과 국악, 현대 무용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민요연곡, 줄풍류 중 타령·당학, 강태홍류 산조춤, 엘리트 제1번(라흐마니노프), 오블리비언-리베레탱고(피아졸라) 등

- 기획, 피아노/홍선화 • 바이올린/이현우
- 첼로/윤주연 • 가야금/최경철 • 거문고/김현경
- 저대/안창섭 • 현대무용/장오경, 김나영
- 편곡/권태우, 김예진 • 연출/이창원

- 🎫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 ☎️ 크레센트솔로이스츠 242-8479, 010-8460-8479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풍류, 여름을 열다**

전통음악을 뿌리에 두고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음악으로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해오고 있는 운사당(정자경 가야금병창 아티스트)의 무대. 초여름의 길목에서 열리는 신명 넘치는 무대로, 전통국악에서부터 퓨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가야금병창/정자경(음악감독), 박혜선
- 드럼/김진훈 • 베이스/박재훈
- 신디사이저/장메라 • 고수/이충인
- 해금/최유리

- 🎫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R석 2만원, S석 1만원
-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2026 KISF OST 콘서트
윤일상&WE필하모닉 스트리밍 콘서트**

국내 최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축제인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KISF 2026)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2026 KISF OST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영화·드라마 OST를 대표하는 음악감독 윤일상이 WE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자신의 대표작들을 시네마틱 오케스트라 무대로 선보인다.

특히 영화 <카지노>, <안시성>, <범죄도시 4>, <파인> 등 스크린을 빛냈던 음악들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새롭게 펼쳐지며, 가수 이은미·임한별의 가창이 더해져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 🎟️ 전석 3만원
- ☎️ (사)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KISF)

하
미
음



**부산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부산교구 가톨릭 음악활성화를 위한 음악봉사단체로, 전 단원이 가톨릭신자로 구성된 부산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가톨릭 음악가와 함께하는 거룩한 울림의 무대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지휘/김정웅 • 단장/은지현
- 바이올린/김덕우
- 특별출연/남양산성당 평화의섬 성가단, 온천성당 라우다떼 성가단, 용호성당 한마음 성가단

-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무료(신청 필수)
- ☎️ 부산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010-7590-8521



**을숙대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그림을 그리며 노래하는 모닝 콘서트**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을숙대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6월 무대. 소프라노 스텔라 안, 피아니스트 박재나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음악과 미술이 결합된 융합공연으로 피아노 연주와 노래, 실시간 드로잉으로 감정의 흐름을 시각과 청각으로 동시에 전달하며 관객과 소통한다.

- 🎫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1:00
- 📍 을숙대문화회관 소공연장
-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미포함시 1만원)
- ☎️ 을숙대문화회관 220-5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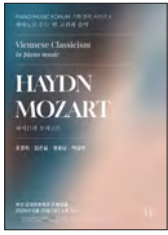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토타 오스피탈 리사이틀**

파이프오르간의 다양한 음색과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파리 생외스타슈 성당의 상주 오르가니스트이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토타 오스피탈의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라벨 등 시대를 아우르는 명작과 함께 토타 오스피탈 특유의 즉흥 연주가 더해져 전통과 창조성이 결합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Pre-Concert Talk/오르가니스트 박준호

-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 🎟️ R석 5만원, S석 3만원
- ☎️ 클래식부산 640-8888



PIANO MUSIC FORUM 기획연주 시리즈 II
피아노로 듣는 빈 고전파 음악
HAYDN & MOZART

피아노 음악 연구 콜렉티브 PIANO MUSIC FORUM의 두 번째 기획연주.

이번 무대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기까지 오스트리아의 빈(Wien)을 중심으로 부흥하였던 고전주의 양식의 대표적 음악가인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음악을 통해 명료하고 균형 잡힌 고전적 형식미에 다양한 인간의 감정과 과하지 않은 격정을 담은 빈 고전파 음악, 그 절제된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

- 연주/조경희, 김은실, 정꽃님, 박남희

-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전석 1만원
- ☎ PMF 010-4871-9288



AUX 콘서트 <무제無題> **Untitled**

한국 전통음악의 정서에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실험하고 있는 밴드 AUX의 무대.

'AUX'는 외부입력단자(Auxiliary)에서 이름을 따온 밴드로,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흡수하고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송출한다는 철학을 지닌 감각적인 크로스오버 밴드이다. <풍류대장>, <불후의 명곡>,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방송 출연과 공연 활동을 통해 전통음악의 새 지평을 여는 주목받는 젊은 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음악을 다양하게 풀어낸 현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AUX만의 음악을 들려준다.

-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전석 1만원
-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 하우스 콘서트
미슐랭 클래식(Michelin Classic)

시그니엘 부산과 예술기획 마음미인 협업으로 마련되는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

예술기획 마음미인 박진영 대표의 해설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미슐랭 클래식(Michelin Classic)>이라는 테마로, 미쉐린 투키를 획득한 시그니엘 부산의 미식 세계와 고품격 클래식 선율을 블렌딩하여, 관객들에게 단순한 청취를 넘어선 감각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는 시그니처 세션이다.

공연 당일에는 하우스 콘서트 관객을 위한 한정 페어링 메뉴(2인 기준 커피 또는 샴페인과 케이크)도 함께 선보인다.

-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00 시그니엘부산더라운지
- 🎫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 이용 시 무료
- ☎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 922-1212



창단 20주년 유니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기념음악회 **조지 거슈윈 <포기&베스>**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선사하고자 2006년 창단한 유니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가 창단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

미국 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조지 거슈윈의 '포기&베스'를 들려준다.

- 지휘/이동신 • 합창지휘/김태경
- 소프라노/김민정 • 바리톤/안세범
- 합창/수영구헌성합창단, 수영구여성합창단, 본과 이어합창단

-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7:00 부산콘서트홀
- 🎫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 UKO 010-3591-0861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버나 콘서트

자비와 화합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하는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2016년 8월 창단 후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BTN 불교TV 합창단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나눔과 희망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의 평안과 감동을 전한다.

- 지휘/추현철 • 단장/박다연

-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BTN 불교TV 합창단 010-9345-8137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한 여름의 꿈**

바다와 음악이 만나는 송정의 복합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마련하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6월 무대.

초여름의 길목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첼리스트의 서재' 음악감독이자 '어연히(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와 플루티스트 신혜원, 그리고 피아니스트 박민희,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우가 지브리의 대표곡들을 비롯하여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를 들려준다.

-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 🎫 전석 3만원(만 5세이상 관람)
-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30주년 기념
오페라 <봄·봄>**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백미, 김유정의 동명의 소설을 우리 전통의 놀이판 형식과 서양 오페라 어법으로 풀어낸 창작오페라 <봄·봄>.

<봄·봄>은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초연무대를 가진 후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봄·봄>에 이어 마당놀이 형식의 전통연희 <아리랑 난장>을 함께 선보인다.

- 예술감독, 연출/안지환 • 대본, 작곡/이건용
- 출연/박정민, 전병호, 한경성, 김향은
- 사물놀이/전통연희단 꼭두쇠

- 🎫 6월 25일-26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해운대 We Road Choir 제2회 정기연주회

해운대를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혼성 시니어합창단인 해운대 We Road Choir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해운대 We Road Choir는 지난 2023년 2월, 노령층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창단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지역민을 위한 행사, 취약 계층을 위한 위문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 We Road Choir는 혼자자 아닌, 함께 걷는 길, 그 길에서 전하는 위로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 지휘/권영기 • 반주/김민희
- 단장/류명희

-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초대(5세 이상 관람)
- ☎ 아트락 010-5468-4658



**녹턴 스트링 콰르텟 제16회 정기연주회
Still Moving: 더 이상 빛나지 않아도**

지난 2017년 창단 이후 바로크, 탕고, 베토벤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획을 이어온 녹턴 스트링 콰르텟의 16번째 이야기.

현악 4중주의 섬세한 흐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음악'을 들려주는 무대로 덴마크 작곡가 루네 톤스고르 쇠렌센의 현대 작품 <Shine You No More>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를 현악 4중주 편곡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 바이올린/김진디, 이상엽 • 비올라/김준형
- 첼로/김동준 • 클라리넷/이동형

-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무료
- ☎ 녹턴 스트링 콰르텟 010-8421-5491



**2026 NAC 시그니처 클래식
심포니 No. 5 & 코랄 시리즈V
<쇼스타코비치 No. 5>**

교향곡 명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주곡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이는 NAC 시그니처 클래식 시리즈 <Symphony No.5 & Choral Series> 네 번째 무대.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쇼스타코비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작인 <교향곡 제5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음악 여정을 선사한다. 1937년 발표된 이 곡은 스탈린 체제 당시 숙청의 대상이었던 쇼스타코비치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빛낸 비극적 걸작으로, 시대를 넘어서는 감정의 울림으로 오늘날에도 큰 공감을 전한다.

앞서 1부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



로 자리잡은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깊은 서정성이 담긴 엘가의 <첼로 협주곡 Op. 85>를 첼리스트 이정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탁월한 기교와 깊이있는 음악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끊임 없이 탐구해온 이정현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국제무대에 데뷔한 후 2017년 제1회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수상자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듬해 윤이상 국제콩쿠르 우승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확고히 했다. 이정현은 2023년 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50년 만의 여성 첼로 단원으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모교인 커티스 음악원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지휘/오충근(예술감독) • 첼로/이정현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 낙동아트센터 970-2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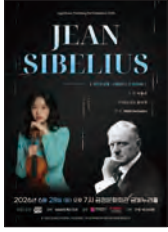
**Tiempo Orchestra 제3회 정기연주회
오늘 하루도 폭삭 속았수다**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따듯한 감성과 섬세한 앙상블로 들려주는 Tiempo Orchestra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음악의 위로'를 주제로, 바쁜 하루 속 잠시 멈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음악으로 선물한다.

- 단장/김명옥 • 지휘/정희보
- 연주/Tiempo Orchestra
- 합창/클라우드 합창단
- 협연/바리톤 정성민

-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초대
- ☎ Tiempo Orchestra 010-3881-3753



파도와 선을 작곡가 시리즈:장 시벨리우스

북유럽의 자연사서를 부산의 바다 풍경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무대 <파도와 선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한 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고 2012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1부 바다의 서막(핀란드리아), 2부 고독한 항해(바이올린 협주곡), 3부 파도위의 환희(교향곡 2번)으로 고조되는 시벨리우스의 서사를 통해 관객들의 다양한 해석적 경험을 이끌어낸다.

- 지휘/이명근 • 바이올린/김다미
- 연주/M&M오케스트라

- 🎫 6월 28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전석 1만원
- ☎ 우가뮤직 0507-1310-9110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최후의 트레몰로**

딱수달 마지막 주 화요일,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고품격 음악회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6월에는 기타리스트 이마술, 김승원과 바이올리니스트 문지원이 출연, 스페인의 정취를 담은 알베니즈, 파야의 곡을 비롯 기타 역사를 빛낸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통해 기타 선율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 해설/송현민(음악평론가)

- 🎫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전석 2만원(커피포함)
-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2026 NAC 렉처콘서트
명견만리 시리즈2 행복의 향로**

한 분야의 탁월한 명사를 초청,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풀어내는 토크가 있는 인문학콘서트 <명견만리> 시리즈 두 번째 무대.

매주 '월요편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온 조근호 변호사와 함께 <행복의 향로>라는 부제로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방향을 묻는 향해를 음악과 함께 펼친다.

특히 오종근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조근호 변호사의 메시지가 교차하며, 서로 다른 음악의 결이 '행복'의 방향을 비추며 각자의 향로를 찾는 여정을 이끈다.

- 🎫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 낙동아트센터 970-2771



부산콘서트홀 개관 1주년 페스티벌

부산콘서트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음악축제. 정명훈 예술감독과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협연자와 부산 출신 젊은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새로운 클래식 축제'를 선보인다.

**2일(목) 오후 7:30 콘서트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예술감독 정명훈이 지휘하는 APO와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소프라노 이혜지,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김정훈, 바리톤 김주성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 입장료/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학생석 1만원

5일(일) 오후 5:00 콘서트홀 <말러 교향곡 제5번>
말러 특유의 섬세한 음향과 철학적 깊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말러 교향곡 제5번>.

- 지휘/정명훈(예술감독)
- 연주/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입장료/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학생석 1만원

6일(월) 오후 7:30 챔버홀 <시간의 잔향>

최근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피아니스트 배길과 APO 앙상블이 함께하는 실내악 무대.

프로그램

- 슈만/아라베스크 다장조 op.18
-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op.44
- 말러/교향곡 제5번 중 <아다지에도>
- 쇼스타코비치/피아노 3중주 제2번 마단조 op.67
- 입장료/전석 5만원

7일(화) 오후 7:30 콘서트홀 <신세계로, 함께>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APO와 부산 출신 청년 음악가 20인이 함께 연주하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통해 세대와 지역,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예술적 비전을 제시한다.

<신세계로부터> 연주에 앞서 1부에서는 시적 감성이 깃든 매혹적인 사운드와 완벽한 테크닉의 조화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특유의 감성세계를 집약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 입장료/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학생석 1만원

8일(수) 오후 7:30 챔버홀 <모든 감정이 머무는 세계>

정명훈 예술감독이 피아니스트로 직접 무대에 올라 APO 앙상블과 함께 페스티벌 마지막을 장식한다.

프로그램

- 헨델-할브르센/파사칼리아
- 베토벤/피아노 3중주 제5번 op.70-1 <유령>
- 브람스/피아노 4중주 제3번 op.60
- 입장료/전석 5만원



- 🎫 7월 2일(목)-8일(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 ☎ 클래식부산 640-8888



연극 신바람시대

기발한 연출과 배우들의 명품연기로 공연의 묘미를 느끼게 해줄 <신바람시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삼대가 사는 집이 어느 날 비게 되면서 그 틈을 타 각자의 애인을 초대하며 발생하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극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과 사랑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총칭무진 6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 두 명의 열연이 공연 내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 3월 26일(목)-7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5:30(월요일 공연없음, 6/3일 오후 6: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 전석 4만원(8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 ☎️ 썬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1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독고'는 편의점 주인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편의점에서 아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알코올성 치매로 말투와 행동이 어눌한 독고를 둘러싸고 처음에는 의심과 오해가 생기지만,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 <불편한 편의점>은 국내 누적판매 부수 170만 부를 돌파한 김호연 작가의 밀리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지난 2023년 초연된 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 📅 3월 28일(토)-8월 3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 (월-화요일 휴관, 6/3일 오후 2:00) **KNN시어터**
- 🎫 전석 6만6천원(예매시 할인)
- ☎️ KNN시어터 664-8400



연극 할래 말래

MZ 장손과 힙스터 조상님의 좌충우돌 가문 업데이트 프로젝트 <할래 말래>. N년차 프로 취준생 민수에게 일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조상님 소환데이'. 만나기만 하면 펼쳐지는 오지랖퍼 천척들의 잔소리 폭탄 투하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인데, PTSD 올 거 같은 민수에게 급기야 조상 신령까지 등장하고...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며 벌어지는 웃기면서도 뼈대리는 에피소드로 세대불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 작/장세운
- 📅 4월 2일(목)-7월 1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월요일 휴관)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 ☎️ 썬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공연



판타지 뮤지컬 오싹한 알바

관계와 기억을 다룬 판타지 뮤지컬 <오싹한 알바>. 아무도 남지 않은 무대 뒤 공간, 누군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돌보고 있고 남겨진 세 명의 배우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은 채 극장 안에서 살아간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읽지 못한 메시지,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 늘 그 자리에 있던 '그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 진짜 쇼가 시작된다.

- 연출/최형 • 음악감독/김영재

- 📅 4월 3일(금)-6월 30일(화)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수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 🎫 전석 5만5천원(12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 ☎️ 극단 바라 1600-1716



연극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짝사랑을 소재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찾는 창작 로맨틱 코미디극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현실적인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 라인, 가벼운 웃음 끝에 던지는 묵직한 감동의 메시지로 관객과 만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야쿠자부터 로맨티스트, 한류 스타까지 한계를 넘나드는 1인 7역의 변신쇼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기발한 설정과 실 톤 없이 터지는 웃음 폭탄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준다.

- 📅 5월 2일(토)-7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 🎫 전석 5만원(만 12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 ☎️ 극단해프닝 070-4618-2798



뮤지컬 나의 보통의 하루

꿈을 잃어버린 청춘들을 위한 휴먼 코미디 뮤지컬 <나의 보통의 하루>. 가난한 형편 속에 학자금 대출과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취준생 미소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꿈을 향해 평범하지만 치열한 하루 속에서 살아가는 청춘들의 성장과 연대, 책임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있다. 특히 배꼽 빠지는 코믹함 뒤에 찾아오는 가슴 먹먹한 울림이 관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한다.

- 연출/권태웅
- 작곡, 음악감독/이우영

- 📅 6월 13일(토)-20일(토) 오후 3:00, 6:00, 18일(목) 오후 7:30, 21일(일) 오후 3:00 **가온아트홀 2관**
- 🎫 전석 5만원(예매시 할인)
- ☎️ 극단이야기협동조합 070-4618-7230



연극 오호, 통재라! 나는 죽는다

진부한 리얼리즘을 벗어나 현대연극의 다양한 형식 실험에 치중해온 부두연극단의 무대.

이오네스코의 <왕은 죽어간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오호, 통재라! 나는 죽는다>는 죽음을 앞둔 유명회사 CEO가 죽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관객과 함께 죽음과 삶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다.

특히 죽음의 과정에 놓인 사람의 의식, 무의식 등이 의인화되어 희극적으로 표현되며 관객은 무대에 동화되기도, 이화되기도 하며 '성찰'의 순간을 맞는다.

- 각색, 연출/이성규
- 출연/양진철, 우명희, 조영미, 이동희, 김경수, 강정희

- 📅 6월 10일(수)-1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맥터스소극장
- 🎫 전석 3만원(예매시 2만원, 단체할인 1만원)
- ☎ 부두연극단 010-7450-3582, 010-5580-4364



연극 해안도로

독일의 극작가 탄크레드 도르스트의 <위험한 커브>를 실험적으로 재창작한 연극 <해안도로>.

해안도로의 위험한 커브길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며 살아가는 남매, 예술과 일만. 예술은 사고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진정서를 쓰고, 일만은 사고 이후의 잔해를 처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관계'에 대한 질문에 출발한 이번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구조를 해체하고 그 틈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폭력과 부조리를 드러낸다.

- 재창작, 연출/전상배
- 출연/황미애, 이동희, 김학준

- 📅 6월 16일(화)-20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 🎫 전석 3만원
- ☎ 공간소극장 611-8518



코러스극 히로시마 메시지

1995년 초연된 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른 극단 새벽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 <히로시마 메시지>.

일본말로 '피폭자'를 뜻하는 홍가이의 희곡 <히바쿠샤>를 원작으로, 한국인 피폭자 '최영주'라는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 정부의 책임을 다시금 묻는다.

- 재구성, 작사, 연출/이성민 • 작곡/조억래
-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전상미, 정선욱, 김다애, 송아린, 황보성, 강민희

- 📅 6월 11일(목)-8월 15일(토)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인디아트홀
- 🎫 전석 3만5천원(15세 이상 관람)
- ☎ 극단 새벽 245-5919



Musical Gala Show 클라이막스

국내외 인기 뮤지컬의 명장면과 주요 넘버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뮤지컬 갈라쇼 <클라이막스>.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아트레블루션이 함께하는 씨어터링크지원사업으로, <지킬 앤 하이드>, <아이러브유>, <맘미미아> 등 대중적으로 사랑받아 온 뮤지컬의 명장면과 넘버를 중심으로, 배우들의 생생한 가창과 연기력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뮤지컬 하이라이트를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특히 단순히 유명 넘버를 나열하는 갈라 공연을 넘어, 각 작품이 지닌 드라마와 감정을 관객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관객부터 뮤지컬 애호가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다.

-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본래홀
- 🎫 전석 1만5천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뮤지컬 빨래

서울을 배경으로 사회 초년생 '나영'과 몽골 이주노동자 '솔ongo',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빨래>.

2005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약 7,000회의 공연, 누적관객 130만 명을 돌파하며 창작뮤지컬의 신화를 써내려온 <빨래>는 한국뮤지컬대상,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더뮤지컬어워드 등 국내 주요 시상식에서 극본·작곡·작사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 📅 6월 24일-26일 수-금요일 오후 7:30, 27일 토요일 오후 2:00, 6:30, 28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 ☎ 파워엔터테인먼트(주) 1660-3570



연극 노인의 꿈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노년의 삶과 가족, 잊고 지냈던 꿈을 주제로 한 연극 <노인의 꿈>.

한때 화가를 꿈꿨지만 지금은 오래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봉희. 캔버스보다 월세가 더 무서운 그녀 앞에 세상 힙한 할머니 촌애가 나타나고, 자신의 영정사진을 직접 그리고 싶다는 촌애의 막무가내 고집으로 두 사람만의 수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낸 <노인의 꿈>은 명품연기로 사랑받는 국민 할머니 김영옥과 하희라, 박지일, 윤희석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함께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 📅 7월 4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 ☎ ㈜공연마루 1588-0766



가족퍼포먼스쇼 아쿠아쇼-바닷속 버블왕국

최고의 버블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신기한 버블쇼의 세계 <아쿠아쇼-바닷속 버블왕국>.

오염된 바닷속, 슬퍼하는 해양 친구들 앞에 용감한 '집게 마술사'와 신비한 '비눗방울 아티스트'가 나타나 마법같은 비눗방울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은 바닷속 버블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쿠아쇼-바닷속 버블왕국>은 지난 2014년 초 연 이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중국 35개 도시 투어를 갖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1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
- ☎ 쥬조이컬쳐 070-7807-0701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베스트셀러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마트에 가고 아빠랑 단둘이 남겨진 아리는 아빠의 제안으로 엄마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심술맞은 쌍둥이 자매와 무서운 사거리 건널목, 그리고 달콤한 솜사탕 머신까지... 신나고 즐거운 여행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아빠 최고야>는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에서 따뜻하게 그려낸 뮤지컬로, 웃음과 감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전해준다.

- 📅 6월 1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 전석 5만원(전체 관람가, 예매시 할인)
- ☎ 극단가람 010-2284-4842



가족뮤지컬

엄마 까투리-유치원도, 도시도 처음이야

EBS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엄마 까투리>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엄마 까투리-유치원도, 도시도 처음이야>.

도심으로 이사 온 까투리 가족의 이야기로, 엄마와 떨어져 유치원에 가게된 까방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특히 온가족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신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유쾌함 속에 담긴 가족의 사랑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전한다.

- 📅 6월 27일-2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 부산홀
- 🎫 전석 6만6천원(20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 ☎ 극단국민 010-4095-3005

가족극

콘서트



금정 빈백 콘서트

편안한 빈백에 기대어 즐기는 아외음악회 <금정 빈백 콘서트>.

5일 펜텀싱어 서영택×이승민 크로스오버 콘서트
펜텀싱어를 통해 탄생된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나'의 서영택과 '크레졸'의 이승민이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고품격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인다.

6일 하모나이즈×뮤지컬 배우 이건명 쇼카이어 콘서트

국내 최초 쇼카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뮤지컬계 대표 배우 이건명이 모든 장르를 망라한 명곡을 다채로운 하모니와 함께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 📅 6월 5일-6일 금-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아외광장
- 🎫 전석 1만원(음료 포함)
-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을숙도문화회관 소리질러 콘서트

WELCOME TO MY STAGE

을숙도문화회관이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기획된 참여형 콘서트 <소리질러 콘서트> 두 번째 무대.

관객이 함께 소리 지르며 즐기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 무대로, 공연팀 <세레나데>가 뮤지컬 <위대한 쇼맨>, <울속업>, <킹키부츠> 등 웅장하고 파워풀한 뮤지컬 넘버와 대중가요, 자작곡을 선보인다. 다양한 매력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세레나데>는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현대적이고 신선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 📅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 🎫 전석 1만원
-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Playlist : Yeongdo 시리즈

양파&전진희 노래가 된 우리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처럼 소개하는 영도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시리즈 <Playlist : Yeongdo> 첫 번째 무대.

독보적인 감성 보컬리스트 양파와 섬세한 피아노 선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싱어송라이터 전진희가 함께하는 무대로, 화려한 편곡보다 목소리와 선율에 집중하여 사랑과 이별, 기억과 위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남아 있는 노래들을 차분하게 들려준다.

-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영도문화예술회관 본래홀
- 🎫 전석 4만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6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1일(월) 오후 6:30 미디어 리터러시-시민기자대 학기사 피드백 & 특종 찾기 시민기자 데뷔·수료식
 • 강사/박흥식(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더코 리아저널 편집인)

4일(목) 오후 3:00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
 8일(월) 오후 7:00 벨라스케스와 스페인 바로크
 • 강사/김석모(미술사학자, 전 서울미술관 관장)

15일(월) 오후 7:00 미술의 언어: 양식과 미술사 적 시대구분
 • 강사/김석모(미술사학자, 전 서울미술관 관장)

22일(월) 오후 7:00 귀족적 취향과 로코코
 • 강사/김석모(미술사학자, 전 서울미술관 관장)

25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29일(월) 오후 7:00 치유의 예술: 요셉 보이스와 사회조각
 • 강사/김승호(동아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4일(목) 오후 3:00, 25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 ☎ 시네바움 010-2774-3455



6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오페라와 클래식음악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준 높은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오페라/바그너 <탄호이저>(4일~6일), 베토벤 <피델리오>(11일~13일), 베버 <미탄의 사수>(18일~20일), 차이콥스키 <에브게니 오네긴>(25일~27일)
 콘서트/말러 <교향곡 제8번>(1일), 말러 <교향곡 제9번>(8일), 말러 <교향곡 제10번>(15일), R.슈트라우스 <죽음과 변용>(22일), R.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29일)

- 📞 매주 월요일 오후 2:00(콘서트), 목·금·토요일 오후 2:00(오페라) 오페라바움
- 🎟 전석 2만원
- ☎ 오페라바움 010-6657-9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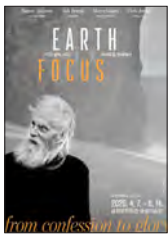


2026 NAC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2

청소년들이 전문 연주자의 해석과 테크닉, 음악적 표현을 직접 배우보는 마스터클래스 두 번째 시간. 단순한 시연을 넘어 음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미국 커티스음악원 교수이자 보스턴 심포니 역사상 50년 만에 탄생한 여성 첼로 단원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이정현이 음악을 바라보는 통찰과 연주자로서의 성장 방향을 제시한다.

- 신청 기간/5월 1일(금)-6월 8일(월) 17:00까지
- 신청 방법/문자 접수 (평일 09:00~18:00)
- ※선정자에 한해 개별 연락

-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4:00 낙동아트센터 앙상블극장
- 🎟 참관 무료
-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010-9763-4577



2026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기획전시
 지구 앞에 서다-위태로운 경계에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는 문제의식 뒤에서 동시대 사진이 어떻게 오늘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는다.

- 📞 4월 7일(화)-6월 14일(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 ☎ 금정문화회관 519-5657

위너 브롱크호스트: 온 세상이 캔버스

거친 텍스처 위 미니어처 인물을 그려넣는 독특한 기법으로 전세계 280만 팔로워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있는 현대미술가 위너 브롱크호스트의 전시.

- 📞 5월 22일(금)-10월 25일(일) 그랜드 조션 부산 4층 전시장
- ☎ 썬미디어엔아트 02-501-9544



앨리스 달튼 브라운 회고전 The Light Within

창문, 커튼, 바다, 빛과 그림자처럼 일상적 소재를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순간으로 풀어내는 작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회고전.

- 📞 5월 23일(토)-9월 27일(일) 아난티 컬처클럽 부산
- ☎ 썬일위한문화예술 662-7041

기획전시 S.N.A. EXHIBITION#40

조태성 개인전 ZOO령주렁

동물의 이야기를 매개로 생명의 아름다움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태성 개인전 <ZOO령주렁>.

- 📞 6월 4일(목)-6월 27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제27회 나연전 墨과 빛의 경계

1998년 창립된 후 꾸준한 창작 교류와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나연회의 27번째 정기전. '묵(墨)'을 중심으로 빛, 미디어, 혼합매체 등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접목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 📞 6월 8일(월)-6월 14일(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 부산예술회관 631-1377

글씨 김덕용 서예전

40여 년간 서예 활동을 이어온 글씨 김덕용 작가 서예전.

- 📞 6월 22일(월)-6월 28일(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 부산예술회관 631-1377

(재)부산문화회관, BNK부산은행과 ART BNK 프로젝트 본격 추진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지역 예술 협업 기대

(재)부산문화회관이 BNK부산은행과 손잡고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전시 프로젝트 <ART BNK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커넥트현대와 진행한 <ART WALK 프로젝트>를 확장한 형태로, 지역 갤러리와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드나드는 일상의 공간에서 지역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지역 예술 협업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BNK부산은행 본점 로비에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업무를 보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끄는 기획 전시를 편성함과 동시에, 남구시니어클럽 시니어컨설턴트 사업과 협력, 새롭게 도입한 '시니어 도슨트 투어'를 통해 평일 12시 30분마다 관람객들에게 깊이 있는 전시 해설을 제공하면서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오는 10월 16일까지 부산은행 본점 로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 기획전은 지역 청년 기획자들의 실험적인 전시공간인 낭만시간연구소의 상환 작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 플랫폼인 어컴퍼니의 이창진 작가, 현대 미술 기획 화랑인 갤러리 재희의 김민정, 김유경 작가가 참여하여 지역 작가들의 글로벌 프로모션과 지역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예술 지원 전문 기관인 기장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한 장애 예술인 기획전 <C-Art 씨앗>이 펼쳐진다. 문정배, 박준수, 안예린, 황성재 등 작가 4인의 순수한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편견 없는 예술의 가치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대미는 지역 근대미술 아카이빙에 앞장서 온 미광화랑이 장식한다. 중견 작가 신홍직의 묵직한 필치를 담은 <드러내고, 품다(Naked, Yet Embraced)>전을 통해 지역 미술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6월 찾아가는 예술단



- 5일(금) 오후 2: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부산시립합창단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 6일(토) 오전 10:00 중앙공원 충훈탑 부산시립합창단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 9일(화) 오후 3:00 부산시청 1층 대강당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 10일(수) 오전 10:30 중부소방서 대강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중부소방서 어울림 음악회>
- 13일(토) 오후 5:00 용두산공원 야외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용두산공원 작은 음악회>
- 24일(수) 오후 4:00 동래소방서 대강당 부산시립합창단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무대>
- 25일(목) 오전 11:00 부산시청 1층 대강당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 25일(목) 오후 12:15 BIFC 1층 로비 부산시립합창단 <BFC 음악회 3>
- 30일(화) 오전 11:00 화정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부산시립교향악단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문화공연>
- 30일(화) 오후 1:00 사상구노인복지관 강당 부산시립교향악단 <2026 노인대학 문화예술체험>
- 30일(화) 오후 1:00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강당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춘이 전하는 6월의 선율>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6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대표번호 051-607-6000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7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날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

2026. 5-12월

Ma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사실 그 날, 용궁에선 기록에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사랑채 2026. 5. 2.(토)-7. 25.(토)

평일 10:30am(단체관람), 토요일 및 공휴일 11:00am, 2:00pm

※ 일요일 및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30,000원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재)부산문화회관×클래식부산

부산발레시즌II <사계 : Time in Tides>

문화 | 중극장 2026. 7. 17.(금) 7:30pm, 18.(토)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안무 | 유희웅

• 출연 |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 클래식부산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사탕을 먹으면 마음이 들려요!

무대에서 펼쳐지는 <알사탕>의 마법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2026. 8. 22.(토) 11:00am, 2:00pm, 4:30pm

동등이석 66,000원 구슬이석 44,000원

• 원작 | 백희나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지원사업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인형극 <그의 하루>

문화 | 사랑채 2026. 8. 28.(금) 7:30pm, 29.(토) 11:00am,

2:00pm, 30.(일) 11:00am

전석 30,000원

• 작, 예술감독 | 조현산 • 연출 | 황승현 • 협력제작 | 예술무대산

※ 관람연령 | 12세 이상 관람



누적판매 50만부 이상의 화제의 베스트셀러 <긴긴밤> 원작

뮤지컬 <긴긴밤>

문화 | 중극장 2026. 9. 4.(금) 7:30pm, 5.(토) 2:00pm, 6:00pm

R 70,000원 S 60,000원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오페라 주니어(Opéra Junior)

문화 | 중극장 2026. 12. 1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출연 | 프랑스 몽펠리에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청소년 합창단

※ 관람연령 | 5세 이상 관람

※ 티켓오픈 추후 공지



부산시민회관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6. 2. 27.(금), 6. 19.(금), 8. 21.(금),

11. 27.(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출연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파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하추핑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시민 | 대극장 2026. 5. 2.(토) 5:00pm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출연 | 지휘자 김성진, 디토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6인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예지원·박하선·정보석 출연

화류비련극 <홍도>

시민 | 대극장 2026. 6.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임선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각색/연출 | 고선웅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집착에 눈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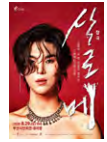
시민 | 대극장 2026. 8. 29.(토)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오스카 와일드 'Salome' • 출연 | 김준수, 유태평양 외

• 극본 | 고선웅 • 연출 | 김시화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신화를 만든 신카이 마코토의 세계

신카이 마코토 공식 FILM & OST 하이라이트 필름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6. 9. 3.(목) 7:30pm

VIP석 11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연주 |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팬텀싱어 시즌4 우승의 감동, 부산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최고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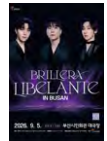
Brillera, Libelante in Busan

시민 | 대극장 2026. 9. 5.(토) 5:00pm

VIP석 11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출연 | 리베란테(김지훈, 진원, 노현우)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공연

손 끝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낙서의 세계

매직 드로잉 가족극 <두들팝>

시민 | 대극장 2026. 9. 17.(목)-18.(금) 10:30am

전석 30,000원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 단체 관람 대상 공연으로 전화예매만 가능



통제된 흐름과 깨지는 리듬 사이
국립현대무용단 <트리플 빌>

시민 | 대극장 2026. 10. 23.(금) 2:00pm,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안무 | 윌리엄 포사이스, 이재영, 정철인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키즈클래식콘서트
'라보'의 클래식 상사-모차르트

시민 | 소극장 2026. 10. 30.(금) 10:30am, 31.(토) 11:00am, 2:00pm
전석 30,000원
• 출연 | 라보(시간여행 가이드), 모차르트(작곡가), 라보 챔버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0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 금요일 10:30 회차는 단체 관람 대상 공연으로 전화예매만 가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공연
연극 <타인의 삶>

시민 | 대극장 2026. 11. 6.(금) 7:30pm, 7.(토) 3:00pm
VIP석 70,000원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 각색, 연출 | 손상규
※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 티켓오픈 추후 공지



우리 동네 목욕탕에 선녀님이 나타났!
백희나 작가의 마법 같은 이야기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시민 | 대극장 2026. 11. 21.(토) 11:00am, 2:00pm, 4:30pm
덕지석 66,000원 선녀님석 44,000원
• 원작 | 백희나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공연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시민 | 대극장 2026. 12. 4.(금) 7:30pm
R석 6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재안무 | 박경숙
• 출연 | 광주시립발레단
※ 관람연령 | 6세 이상 관람(1인 1티켓)



세계와 부산을 잇는 음악, 한 해의 끝에서 만나다
2026 송년음악회 <손열음 & 고잉홀프로젝트>

시민 | 대극장 2026. 12. 17.(목) 7:30pm
VIP석 80,000원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피아노 | 손열음 • 바이올린 | 스베들린 루세브
• 연주 | 고잉홀프로젝트(음악감독 스베들린 루세브)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 Bach Society>

시민 | 대극장 2026. 12. 19.(토) 5:00pm
VIP석 11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비올라 | 리처드 용재 오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기브
• 연주 | 체임버 앙상블(12인조 예상)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한 해를 정리하는 따뜻한 밤
2026 제야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6. 12. 31.(목)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 티켓오픈 추후 공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 부산콘서트홀 / **낙동** 낙동아트센터 / **금정** 금정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우리 아이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5. 6.(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 백승현 • 샌드아트 | 노선이
• 내레이션 | 이혁우, 오희경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



제631회 정기연주회
부산, 말리

부산 | 콘서트홀 2026. 5. 18.(목) 7:30pm
R석 50,000원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지휘 | 홍석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꿈을 향해!'

문화 | 중극장 2026. 5. 1.(금) 3:00pm, 7:30pm, 5. 2.(토) 11:00am, 3:00pm
전석 20,000원
• 지휘 | 엄보영
※ 관람연령 | 30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제200회 정기연주회
벤저민 브리튼 'War Requiem'

부산 | 콘서트홀 2026. 5. 2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광주·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
홀로홀출_나의 길 나의 춤

문화 | 중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훈



제201회 정기연주회
2026 SUMMER FANTASY

문화 | 중극장 2026. 7. 23.(목) 7:30pm

- 지휘 | 엄보영 • 타악 | 이상하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 '사제동행-결 그리고 올림'

문화 | 중극장 2026. 5. 14.(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02회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의 밤VI

문화 | 중극장 2026. 9. 18.(금) 7:30pm

- 지휘 | 이기선



제236회 정기연주회
국악의 날,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

문화 | 중극장 2026. 6. 5.(금)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37회 부산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3.(화)-11. 5.(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예술교육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

시민 | 대극장 2026. 7. 2.(목)-7. 3.(금) 10:30am, 2:0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03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 'A Child of Our Time'

부산 | 콘서트홀 2026. 12. 3.(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열대야 국악 재즈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6. 8. 11.(화)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부산시립무용단

제93회 정기공연
바라는 바다

시민 | 대극장 2026. 5. 22.(금) 7:30pm, 5. 23.(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훈



제237회 정기연주회
부산, 청년

문화 | 중극장 2026. 9. 17.(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공연
이정훈의 댄스살롱 - 한 여름밤의 댄스파티

장소 미정 2026. 7. 24.(금) 7:30pm, 7. 25.(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6. 9. 30.(수)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94회 정기공연
동백

시민 | 대극장 2026. 10. 30.(금) 7:30pm, 10. 31.(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훈



제238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I
'2026 부산 국악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6. 10. 29.(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1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11. 24.(화)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9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 'No Boundary'

시민 | 대극장 2026. 12. 18.(금)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제82회 정기공연

타오

문화 | 중극장 2026. 7. 2.(목)-7. 3.(금) 7:30pm
7. 4.(토)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 | 김세화 • 각색, 연출 | 허석민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제83회 정기공연

메데이아

시민 | 소극장 2026. 9. 11.(금) 7:30pm
9. 12.(토)-9. 13.(일)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 | 에우리피데스 • 연출 | 박용희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미스 줄리'

시민 | 소극장 2026. 11. 27.(금) 7:30pm, 11. 28.(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 연출 | 최용혁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인형의 집'

시민 | 소극장 2026. 12. 4.(금) 7:30pm, 12. 5.(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헨릭요한 입센 • 연출 | 이혁우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바다로 가는 기사'

시민 | 소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존 밀링턴 싱 • 연출 | 차승호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80회 정기연주회

숲과 숲

낙동 | 콘서트홀 2026. 5. 14.(목)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6. 27.(토) 5:00pm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7. 18.(토) 5:00pm



제81회 정기연주회

부산 | 콘서트홀 2026. 9. 4.(금)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0. 28.(수) 7:30pm
• 지휘 | 백승현



제82회 정기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2. 16.(수)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콩쥐 팥쥐'

문화 | 중극장 2026. 5. 30.(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0회 정기연주회

더 큰 꿈을 향하여... Dreams to Dream

문화 | 중극장 2026. 9.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6.(금)-11.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1회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노래해요 We sing together

문화 | 중극장 2026. 12.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재)대송문화재단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주)한성테크 회장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언기초건설(주) 회장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주)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주)상명 회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유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유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 유용주 (주)대우공업사 대표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에리카정애 명성피셔리 주식회사
- 이종원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명선 정민섭산부인과 원장
- 정민섭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준형 문우당서점 해광출판사 대표
- 하정태 (주)일신케미칼 사장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허혜영

※ 회원명 가나다순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607-6072)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SPECIAL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6년 예매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 1인 1매에 한해 예매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예매 가능 공연

인형극 <그의 하루>

2026년 8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30일(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40매)

국립현대무용단 <트리플 빌>

2026년 10월 23일(금) 오후 2:00,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라보'의 클래식 상자-모차르트

2026년 10월 31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40매)
*평일 회차 제외

2026 제야음악회

2026년 12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 티켓오픈 추후공지

☀ 예매 완료 공연

화류비련극 <홍도>

6월 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창극 <살로메>

8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신카이 마코토 공식 FILM & OST 하이라이트 필름 콘서트

2026년 9월 3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4

2026년 11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2026년 12월 4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 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 참여기간 : 2026. 5. 27.(수)~6. 14.(일)
-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6. 6. 22.(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6년 5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0864 010-****-3867 010-****-4862
010-****-1424 010-****-3055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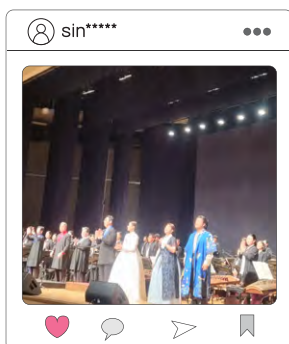
📷 @bsculturalcenter_official

📺 @배시시TV

📘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 (재)부산문화회관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주차안내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안내

입차 후 4시간 이내	2,000원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할인대상(50%)

- 정기회원, 국가 유공자, 장애인
-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 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정기회원 주차 안내

- 주차요금 할인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 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록 방법

E-메일(cus@bscc.or.kr), 고객센터 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 607-6000
(평일 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캠 챔버홀
- 사 사랑채극장 야 야외광장

공지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한 해 대극장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전시

국제 디지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2026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
<무빙 온 아시아(Moving On Asia)>
4월 23일(목)-6월 18일(목) ※월요일 휴관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부산회화제
6월 21일(일)-6월 27일(토)
부산회화제 운영위원회 010-2870-0505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1	2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가우디의 예술 노트> 14:00 캠 전석 2만4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2026 AK21 안무가육성경연 15:00 중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제20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17:00 캠 전석 2만원/최낙주(010-4536-2351)	8	9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가우디의 예술 노트> 14:00 캠 전석 2만4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4 2026년도 제53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9:30 캠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15	16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가우디의 예술 노트> 14:00 캠 전석 2만4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1 2026년도 제53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9:30 캠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22	23 이탈리아 피아노트리오 코발트 초청콘서트 19:30 중 전석 5만원/부산문화(1600-1803)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가우디의 예술 노트> 14:00 캠 전석 2만4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8 2026년도 제53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수상자 축하 연주회 17:00 캠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29	30 제68회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캠 독일가곡연구회(010-4813-0018)

Wed

3

2026 독일 초청 연주 프리뷰 콘서트
<Guitar Dialogue> 19:30

🎫 전석 3만원
루체테음악극연구소(513-1009)

THU

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술교육공연
<꼭! 꼭! 클래식아 놀자> 10:30
🎫 전석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음악예술팀(607-3117)

소프라노 양효정 독창회 19:30
🎫 초대/미:트(010-2682-6971)

FRI

5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6회 정기연주회_국악의 날 기념공연
<다시 울리는 우리의 소리> 19:30
🎫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SAT

6

드미트리 핀츠크&김대훈 색소폰 듀오
리사이틀 19:00

🎫 전석 2만원
아트브릿지 음악연습실(010-8567-3502)

10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당동맹 합창 여행> 10:30
🎫 전석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음악예술팀(607-3114)

11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당동맹 합창 여행> 10:30
🎫 전석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음악예술팀(607-3114)

12

간판때부산 제4회 공연
<The Best of Opera> 19:30
🎫 5만원-3만원
간판때부산(010-9550-4649)

13

2026년도 제53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9:30
🎫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17

2026 현대무용단 자유 RE:body 프로젝트
20:00
🎫 현대무용단 자유(010-5063-0761)

18

제9회 테너 양승엽 독창회 <한국가곡의 밤>
시즌4 19:30
🎫 전석 2만원
문화유목집단 동행(010-7767-4390)

19

제2회 라온콰이어 정기연주회 19:00
🎫 무료/라온콰이어(010-4180-1961)

20

2026년도 제53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9:30
🎫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24

2026 제42회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연주회
16:00
🎫 부산MBC(760-1125)

25

테너 조운환 독창회 <Hommage à
Norman Shetler> 19:30
🎫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6

더부산콘서트콰이어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 초대
더부산콘서트콰이어(010-9902-1844)

27

2026 소통왕 말자쑈 in Busan 14:00,
18:00
🎫 6만6천원-5만5천원
(주)플레이뮤(1555-286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17:00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사랑채극장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5월 2일(토)-7월 25일(토) 평일 오전 10:30(단체공연)
토·공휴일 오전 11:00, 오후 2:00(일·월요일 휴관)
전석 3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대 대극장 소 소극장
- 전 전시실 야 야외광장

전시

- 2026 국제현대미술우수작가초대전
6월 2일(화)-6월 7일(일) 전시실 1, 2
(사)한국현대미술협회 010-7727-0309
- 제22회 부경서도초대작가전
6월 9일(화)-6월 14일(일) 전시실 1, 2
(사)한국서도협회부산지회 010-2555-5335
- 2026년 한중서화 친선교류전
6월 14일(화)-6월 21일(일) 전시실 1, 2
(사)한국서예협회 부산광역시지회
010-9600-5738
- 제9회 금빛사상미술협회 정기전
6월 23일(월)-6월 28일(일) 전시실 1, 2
금빛사상미술협회 010-3093-1622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1	2
7	8	9
<p>제3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부산국악대전 09:00</p> <p>대 (사)부산국악협회(010-9508-5519)</p> <p>제3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부산국악대전 09:00</p> <p>소 (사)부산국악협회(010-9508-5519)</p>		
14	15	16
<p>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대소동> 11:00, 14:00, 16:30</p> <p>소 전석 6만원/(주)아트팩토리(1800-5932)</p>		
21	22	23
<p>2026 김동하 Stand-up Comedy Tour <Life Goes On> 18:00</p> <p>대 7만7천원·6만6천원 엠스타컴퍼니(1599-1216)</p> <p>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바나의 조각들> 15:30</p> <p>소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p>		<p>We Love Korea 19:30</p> <p>대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하나심포니오케스트라(010-2183-7790)</p>
28	29	30
<p>가족뮤지컬 <넘버블록스> 11:00, 14:00, 16:30</p> <p>대 7만원·6만원 브러쉬씨어터(주)(1600-8534)</p> <p>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낭독극 스페이지> 10:00</p> <p>소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p>		<p>한울림합창단 제46회 정기연주회 <The Latin Jazz Mass> 20:00</p> <p>대 무료/예술기획(010-9044-7576)</p>

Wed

THU

FRI

SAT

3

4

5

6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19:30
대 UKO(010-2580-1112)

교문 안 공연:쇼타임 10:30
소 ㈜티움교육(010-3912-4909)

제3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부산국악대전
11:00
대 (사)부산국악협회(010-9508-5519)

제3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부산국악대전
11:00
소 (사)부산국악협회(010-9508-5519)

10

11

12

13

하지희 가야금 독주회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전바탕> 19:30
소 하지희(010-9310-396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홍도>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홍도> 15:00
대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대소동>
11:00, 14:00, 16:30
소 전석 6만원/(주)아트팩토리(1800-5932)

17

18

19

20

2026 부산시니어합창제 <세월의 울림,
희망의 하모니> 15:00
대 초대/문화공감(010-2576-876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다정한 상처> 19:30
소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MIX JAM> 19:30
소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

24

25

26

27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오레스테스> 19:30
소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오레스테스> 19:30
소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

가족뮤지컬 <남버블록스>
11:00, 14:00, 16:30
대 7만원-6만원
브러쉬씨어터(주)(1600-8534)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
<오레스테스> 15:30
소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
(636-3759, 010-8146-3759)

부산시립극단 제82회 정기공연



www.bscc.or.kr

타오

2026. 7. 2.(목)-4.(토)

목·금 19:30, 토 1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원작

김세화

-
각색·연출

허석민

-
출연

이혁우

황창기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채민수

이태성

강담서

강대현

강승환

김승완

김시아

김정민

서상원

엄지영

홍주영

-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만15세이상 관람가)

-
문의전화

051)607-6000

(ARS 1번)

-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
제작

부산시립극단

본 작품은 김세화 소설 《타오》를 각색한 작품으로, 공연적 재구성 과정에서 일부 인물과 설정이 변형되었습니다.

한국 · 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전시



The Greatest Colorist
위대한 컬러리스트

미셸 앙리

26.07.03. FRI - 10. 25. SUN

부산문화회관전시실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



Maison
des Arts
메종 데 아르

H:TEAM

주관

H:TEAM

후원



AMBASSADE
DE FRANCE
EN REPUBLIQUE
DE CORÉE

주최
프랑스
대사관

협력



HYDESIGN



수페르아트



BDA 부산도슨트협회

티켓

티켓링크

Michel Henry

화
류
비
련
극

후도

각색/연출 고선웅

2026. 6. 12.(금) 19:30 ~ 13.(토) 1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우수상·연출상

제51회
동아연극상
여자연기상

제2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분
최우수상

예지원 · 박하선

정보석 · 양서빈 · 견민성 · 홍의준 · 김윤아 · 남슬기 · 이지현

박장면 · 조용의 · 노유라 · 이서현 · 이경은 · 이승주

